

공군

www.airforce.mi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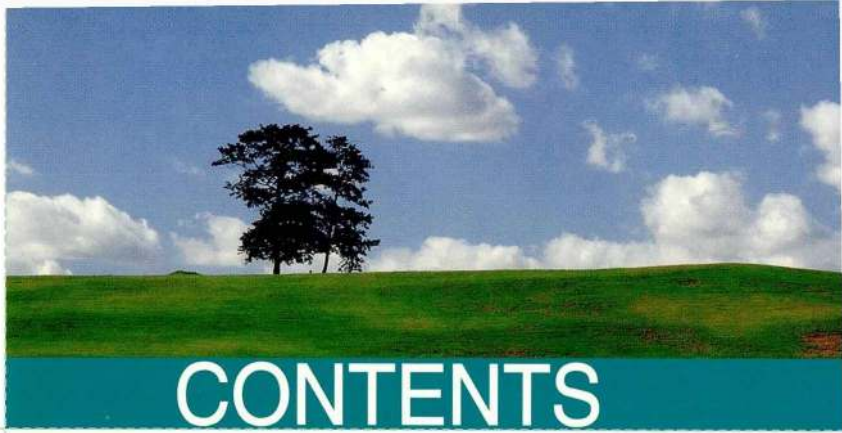
2004. 4 / 제310호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
항공안전, 언제나 맑음
「조종사를 구출하라!」 제6탐색구조전대 요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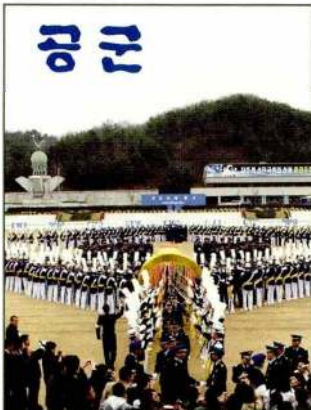


공군

제310호 | 2004. 4



CONTENTS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



Zoom In 제6탐색구조전대 요원들



테마가 있는 나들이 - 남도 꽃구경

공군지 독자 여러분의 주소 변경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02)506-6236으로 알려주십시오. 본지의 내용은 공군인 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3 지 휘 봉
- 4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 - 연설문
- 6 공군은 지금
- 10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십니까?
- 13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 「화제의 인물」

WE ARE GOOD FRIENDS

- 16 태권도로 하나된 한·미 공군 장병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 20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만나

현장탐방

- 22 항공안전, 언제나 맑음

Zoom In

- 25 「조종사를 구출하라」 제6탐색구조전대 요원들

화제의 공군인

- 28 공군 민원봉사 금상 수상자 「김기완 소령」

항공우주군

- 30 세계의 항공무기/순항미사일
- 32 세계의 우주력/유럽 최고의 우주국 「프랑스」

문화나들이

- 34 테마가 있는 나들이/남도기행, 불어라 꽃바람!
- 38 그림이야기/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 44 동아리 마당/남부전투사령부 마라톤 동아리 「남달사동」
- 48 마음으로 읽는 글/「말」 한마디...
- 50 영화이야기/빅 피쉬

생활 속의 작은 실천/18 우리부대 명소/19 법률상식/40 건강 365/42 문화마당/46 장병문예/52 책으로 읽는 세상/56 기상전망대/57 독자의 소리/58 다른 그림 찾기/59 편집장 편지/60 알립니다/61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 한 호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 당부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군이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한다면 어떠한 국가적 난국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을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니, 전 장병은 국가의 공인이자 국방을 책임진 군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주어진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만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부대는 기 하달한 군사대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라며, 각 부대/부서장은 안정적 부대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소속장병 지휘관리에 더욱 관심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 특별 참모회의에서 >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



연설문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친애하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간의 어려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능률한 대한민국 공군장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공을 수호할 호국의 간성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기충천한 정에 공군장교를 길러낸 학교장 김명립 장군을 비롯한 교수와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귀한 자녀들을 훌륭한 사관생도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했
던 불행한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국가안보태세의 확립입니다. 군은 우리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
니다.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
어야 합니다. 모든 장병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어려운 안보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했던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이 열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튼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달에 열린 2차 6자회담에서는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오히려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양국 정상은 포괄적 동맹의 정신 아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주도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스스로도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

공군장병과 신임장교 여러분,

공군력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는 주도적 대북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필수요소입니다.

우리 공군은 21세기 선진공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정찰력을 우선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1 훈련기가 이미 해외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개발이 완료될 T-50 초음속항공기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 향한 우리의 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자랑스러운 보라매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정을 믿으며 조국의 영광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배들이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필승공군의 명예를 더욱 드높여 주기 바랍니다.

21세기의 하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주비행을 향한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도전정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무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한호 참모총장은 필리핀 공군사령관 네스토 산틸란 (Nestor R. SANTILLAN) 중장을 계룡대로 초청, 한·필리핀 공군간 군사교류 활성화와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2 공군본부에는 이한호 참모총장이 주관한 가운데 『2004년도 주임원사 회의』를 개최했다.



3 이한호 참모총장은 3월 16일, 차빠(Chapa) 멕시코 공군참모차장을 초청, 양국 공군의 군사교육, 군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군사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4 공군기술고등학교는 교육사령관 및 사령부 주요 지휘관·참모, 관계자 및 임관자가족·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령부 연병장에서 제33기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5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부산·경남 지역의 초등학생과 어머니 등 120여 명을 부대로 초청, 『1일 병영체험교실』을 운영했다.

6
 지난 3월 8일,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6·25당시 사용했던 AN-M64 불발탄이 발견되었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0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폭탄을 안전한 곳에서 터트리기 위해 신관을 장착하는 모습



7
 제17전투비행단은 3월 5일, 기지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을 초청, 미술관 견학 및 전통 도기제작 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8
 제11전투비행단은 민·관·군 합동으로 대구시 금호강 조수보호구 일대 및 안심습지에서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 주기 및 불법 밀렵 도구 수거활동을 벌였다.



1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은 제8전투비행단에서 블랙이글 팬클럽 회원 100여 명을 초청, 홍보영화 시청·사인회·조종사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2 제18전투비행단은 강릉 국제 관광민속제 준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릉 꽃길 가꾸기 날』 행사에 참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문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

3 지난 3월초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촌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사진은 부대인근 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에 나선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의 모습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십니까?

제3훈련비행단 대령 김 용 흥

만약, 당신이 커다란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임명되어 직위를 수행하게 된다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주어진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대차대조표 확인은 물론, 회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회사를 이끌고 나가야 할 목표 및 방향, 향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전망, 주변 경쟁기업의 동향, 회사의 중·장기 계획 결심 등 산재한 업무로 당신의 머리와 귀와 눈은 한시도 쉴 틈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경영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는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경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2, 3년간의 경영전망은 밝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자신의 미래경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와 반대로, 외부 환경이 당신의 인생경영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불평하지는 않는지? 혹은, 조직의 타성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영의 개념을 인생에 적용해 보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 인생경영에 대입해 보자. 자기자신을 경영하는 유일한 경영주로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듯한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경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기업이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듯이 개인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고, 향후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인생경영에 대입해야 한다. 이것만이 구태의연한 사고의 호수 속에서 침몰하고 있는 자신을 구제할 수단이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이제 자신의 인생경영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을 짚어 보도록 하자.

첫째, 변화해야 한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의 모양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라보게 되는 대상이다. 그럴 수 있는가? 아마 수년간 사용했던 시계라 할지라도 숫자의 배열모양과 위치, 형태, 시침, 분침, 초침 등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난이도의 문제라 관심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자기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앞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조그마한 관심에서 비롯된 창의적 사고가 새로운 가치창조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남이 먼저 생산했거나,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법제화된 표준성(de jure standardization)을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남이 만든 표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자신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주체로써, 오늘 자신이 하는 생각은 어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사전의 준비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사고체제와 잣대를 가지고 미래를 재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재단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를 준비해야만 한다. 주위의 조그마한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고 『日新又日新』을 명심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둘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무리하지 않고도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공을 받아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무슨 마술이라도 걸린 것처럼, 상대방이 친 공은 항상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 물론, 여기엔 그 어떤 마술이나 트릭도 없다. 비법은 상대방이 라켓으로 공을 치는 순간의 힘과 방향, 속도 등을 재빨리 파악해, 친 공이 떨어질 위치를 예측하고 그 위치를 선점하는 것. 어떤 경우엔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는 순간에 이미, 다음에 공이 돌아올 수 있는 위치와 방향을 간파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생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닥칠 일을 미리 파악해, 준비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많은 시간을 주어진 일에 투자하면서도, 일이 끝난 시점부터 다음 일이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그저 즐기고 노는 휴식시간으로 소모해버리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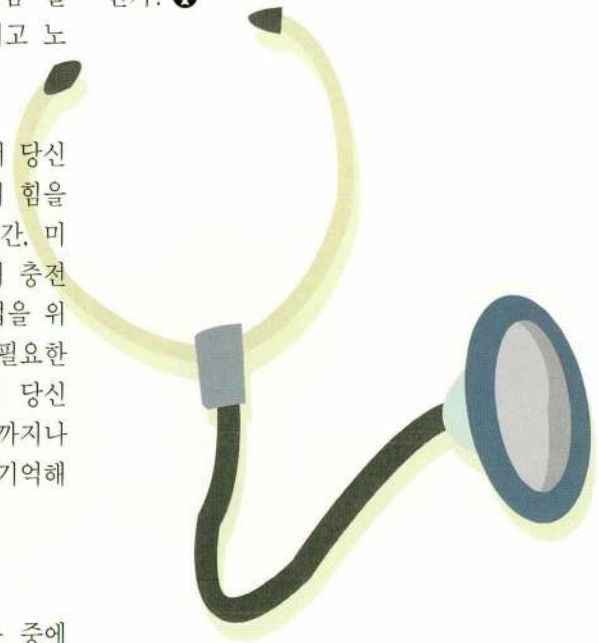
재충전이 없는 소모는 다음 구간에서 당신을 힘들게 할 것이며, 언젠가는 당신의 힘을 고갈시킬 것이다. 여유가 있는 순간순간, 미래를 위해 재충전을 하도록 하자. 현재 충전된 힘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다음 과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생경영에 있어서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의 높이란 어디까지나 현재 준비된 역량 만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셋째, 지금 시작해야 한다.

70년대에 유행했던 어떤 팝송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이는 걸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 주위를 둘러 보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노래 가사와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오늘은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주저하지 마라. 절대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냥 여기서 안주하기엔 너무 이르다.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올라야 할 산 역시 너무나 높다. 등산을 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것처럼 정상이가 가까울수록 경사는 더욱 깊어지고 오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가장 힘든 바로 지금이, 정상을 향한 실제적인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의 과감한 변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부단 없는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생기 있고 윤택하게 할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보라. 흑자인가? 아니면 적자인가? ⊕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 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기행됐다.

지난 2000년 입교하여 4년 동안 장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함양해 온 졸업생들은 이날 공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이들은 이제 조종, 관제, 정비 등 공군의 다양한 특기를 부여받아 각급 부대에서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본지에서는 특별히, 졸업식장에서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보았다.



『일본 通 교수님 탄생』 예고

- 수석 졸업자 임혁 소위



매년 졸업식 때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수석 졸업자. 학업성적은 물론이고 사관학교의 특성상 각종 군사훈련과 내무성적 및 동기생과 훈육관의 평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대학의 수석졸업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 소위는 외국어학과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 지난 '02년, 최초의 일본 방위대 교환학생이 왔을 때에는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발휘해 1년간 룸메이트로 생활하며,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도 했다. 일본인 생도와 함께 지낸 1년을 생도시절의 가장 값진 추억으로 떠올리는 임 소위는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에는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같은 공군사관생도로서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물론, 전공인 일본어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공

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임 소위의 희망은 『공군사관학교 교수』. 후배들을 우수한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엘리트로 키우고 싶다는 임 소위의 당찬 포부가 자못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아버지의 꿈, 아들이 더 크게 펼치겠습니다”

- 순직 조종사 故 박명렬 소령의 아들 박인철 소위



훈련 중 순직한 전투조종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투조종사』의 길을 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인철 소위는 지난 '8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순직한 F-4 팬텀기 조종사 故 박명렬 소령(공사 26기)의 외아들이다.

사고 당시 박 소위는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여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지만, 역시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일까? 어린 시절부터 전투기만 보면 가슴이 설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시절엔 『군인』이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할머니 때문에 일반대학 진학을 준비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역시 나의 갈 길은 군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아들의 이같은 결심에 학원강사로 생계를 꾸려온 어머니 이준신 씨는 『이왕 군인이 된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했고, 아들과 함께 할머니를 설득했다. 이처럼 남다른 사연을 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박 소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도생활을 했다. 어머니,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랑스런 공군소위로 임관한 박인철 소위는 “4년간의 생도생활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조국의 영공방위를 책임지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아버지의 못 다 이룬 꿈을 더욱 크게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초 『공사 여성도』들 『보라매 조련사』되다

- 최초의 공사 출신 여성 훈육관, 공희경, 안선숙 중위

3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사관학교 출신 여성장교로 화제를 모았던 공군사관학교 49기 공희경·안선숙 중위. 이들이 52기 졸업식장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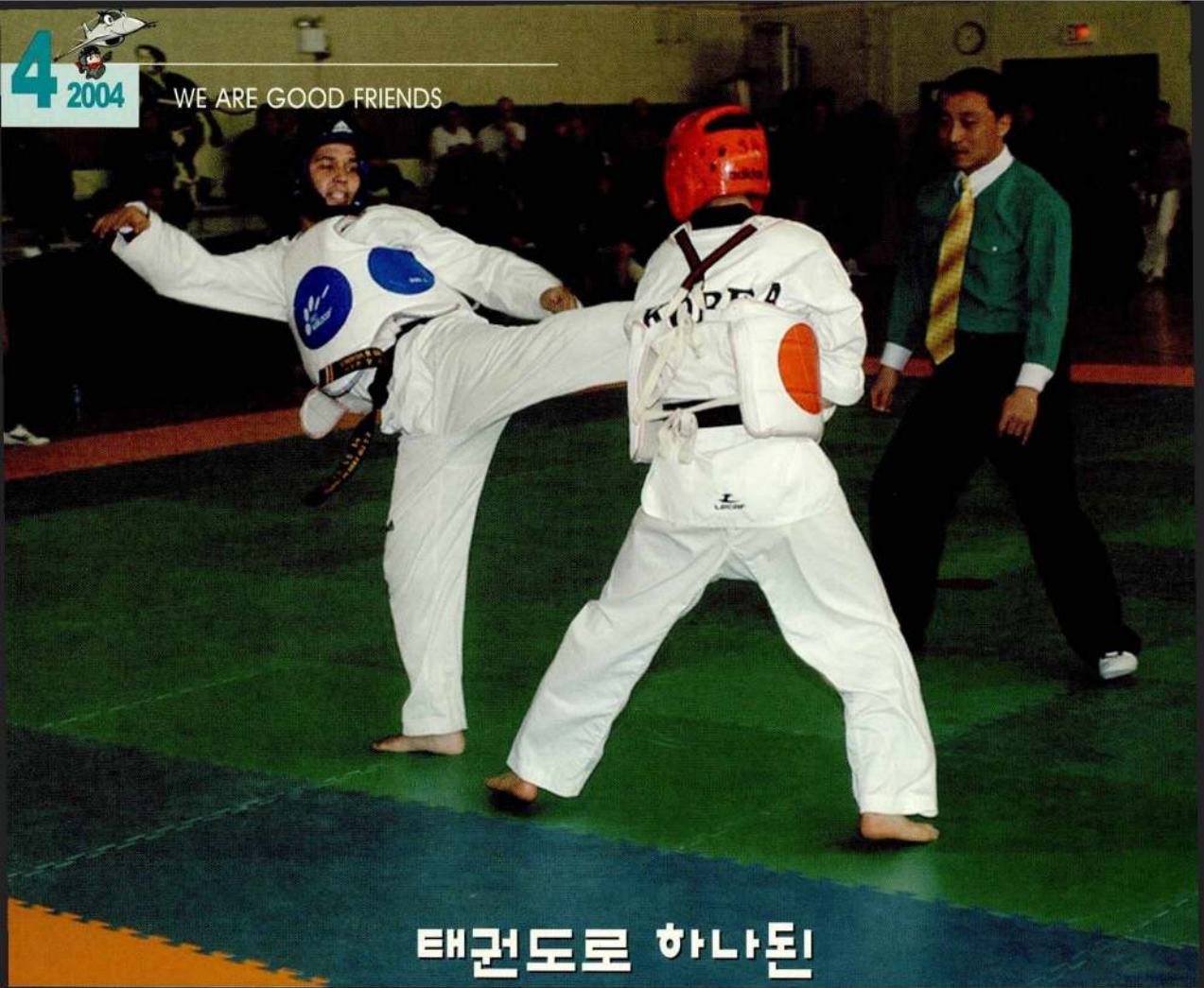
그러나 단순한 축하객이 아니다. 들뜬 표정의 신입 소위들의 경례를 받으며, 감격과 뿌듯함을 함께 나누는 이들은 바로 최정에 보라매를 길러내는 『사관학교 훈육관』, 임관 후 각각 항공무기정비 장교와, 방공무기통제사로 능력을 발휘해 오던 공 중위와 안 중위는 작년 11월,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그동안 사관학교의 여성 훈육관들은 모두 육군에서 전군한 인원들이었으나, 이제는 공군 출신 여성 훈육관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사관학

교 측은 작년 초부터 대상자 선발에 나섰던 것. 훈육관은 생도시절의 학업 및 내무성적과 체력은 물론 실무 배치 후 업무수행능력, 리더십 등 모든 분야에서 생도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훌륭한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 생도시절 『가장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선배』로 이름 높았던 공 중위와 방공무기통제사로 밤낮이 바뀐 4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언젠가 『훈육관』이 될 꿈을 꾸며 체력관리에 힘써왔던 안 중위. 이들은 사관학교 안팎에서 벌써부터 『준비된 훈육관』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졸업한 52기 여성도들은 “생도생활을 너무나 흰히 꿰뚫고 있는 선배들이 훈육관으로 오셨으니 후배들이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농담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생도들을 잘 이해하고, 강인하게 키워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공 중위와 안 중위도 “정예 공군장교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솔선수범하는 멋진 훈육관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





태권도로 하나된

한 . 미 공군 장병들

지난 3월 12일,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에선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행사의 이름은 『제1회 한·미 태권도 경연대회』. 38전대 장병을 비롯하여 같은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美 7공군사령부 예하 제8전투비행단(이하 『美 8전비』) 장병들이 모두 기지 체육관에 모였다.

미군에게 태권도를 알리자

38전대가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부

대에서 태권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군에게 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회에는 38전대 각 대대에서 재구성한 6개 팀과 美 8전비 1개 팀 등 총 7개 팀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겨루기, 격파, 품세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고, 겨루기는 체급별 토너먼트(4체급)로, 격파는 개인별로 기와(격파용 플라스틱 기와 20장)를 격파하는 방법



으로 진행되었다. 품세는 예선전에서는 태극 품세 1~5장을, 결승과 준결승에서는 태극 품세 6~8장을 개인별 토너먼트제로 실시했다.

겨루기에서 미군 병사가 우승컵 차지

핀~플라이급 결승전에서 38전대 김철훈 하사와 美 8전비 Carlos Mendez 상병이 만났다. 한국 장병과 미국 장병이 대결한 이 경기가 대회의 최고 하이라이트였다. 김철훈 하사는 태권도 공인 2단으로 대회 전부터 손꼽히던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Carlos 상병은 실력을 가늠할 수 없는 다크호스였다.

결과는 Carlos 상병의 아슬아슬한 판정승. Carlos 상병은 평소에 美 8전비 동료들과 부대 내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대회 소식을 듣고 피나는(?) 연습 끝에 영광의 우승을 했다고 한다.

겨루기에 참가한 Carlos 상병뿐만 아니라 美 8전비 장병들은 격파와 품세에도 고르게 참가했다. 아직 유단자가 되지 못해 붉은 띠를 매고 서툰 동작을 보여준 장병들도 있었지만, 태권도에 대한 美 8전비 장병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우정의 다리가 된 태권도

태권도는 말도 문화도 다른 두 나라 공군 장병들을 하나로 묶었다. 휴식 시간을 쪼개

함께 연습하고 또 대회를 통해 같이 땀 흘리며 서로의 솜씨를 겨뤄보면서 어느덧 양국 장병들은 친구가 되었다.

대회를 주관한 38전대 전대장 지윤규 대령은 “앞으로 이 대회에 더 많은 미군 장병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태권도 대회가 38전대와 美 8전비 장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통한 한·미 공군 장병들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



4월엔 한그루의 나무를...

공군본부 시설감실



사라져 가는 도시숲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도시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경제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최근 3년간 도시지역의 삼림감소율은 3.5%로 전국평균의 35배에 달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문제 순으로 평가될 정도로 도시숲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 조성과 가로수 심기 등 도시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공군 역시 대부분의 부대가 대도시 혹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 쾌적한 부대환경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숲 가꾸기, 실천은 어떻게?

대형공원에서 주택가, 슈퍼 앞의 느티나무 한그루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도시숲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는 바로 집 앞 공터나 마당에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식목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모처럼 묘목을 분양 받았다고 해도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나무심기와 관련된 몇 가지 상식을 소개하기로 한다.

상록수와 심는 시기를 놓쳐 잎이 자란 나무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며, 대부분의 유실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땅에서는 자라기 힘들니 습기 많은 땅은 피해야 한다.

나무는 그 성질에 따라 양지에서 잘 자라는 양수(陽樹)와 음지에서 잘 자라는 음수(陰樹)로 구분할 수 있다. 양수는 소나무, 은행, 단풍나무류(청단풍 제외), 뽕나무류, 모과, 산수유, 목련, 살구, 배롱나무 등이 있고, 음수는 잣나무류, 전나무류, 칠엽수 등이 있으며 느티나무, 목련, 청단풍, 플라타너스, 라일락, 철쭉 등은 중간수로 양지나 음지에 상관없이 잘 자란다.

나무는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면 쉽게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은 뒤 흙으로 메울 땐 단단히 밟아 주도록 하자. 따로 비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구덩이를 팔 때 나온 표토를 바닥에 깔아 주도록 하고, 유실수의 경우 뿌리와 줄기의 연결부에 있는 접붙인 자리가 흙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자.

생명의 기가 넘치는 4월, 올해는 사무실 주변 공터에 한그루의 생명을 심어 보도록 하자. 🌱

제15혼성비행단

항공기 면회실

제15혼성비행단 대위(진) 정 현 철

공군에도 항공기 Cafe가...

차를 타고 한적한 교외의 국도를 달리다 보면 가끔씩 노후 항공기를 개조한 항공기 Cafe를 보게 되는데, 오붓하고 특이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항상 인기만점이라고 한다. 공군 제15혼성비행단에서는 이러한 항공기 Cafe에서 착안, 부대방문 손님 및 면회객들을 위한 항공기 면회실을 개장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C-123J, 항공기 면회실로 다시 태어나다

항공기 면회실의 정체는 바로 퇴역 수송기인 C-123J. 동체길이 23.27m, 날개길이 33.5m의 이 항공기는 제15혼성비행단 내 『하늘이 공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2000년 5월,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42개의 의자와 14개의 테이블을 갖춘 항공기 면회실로 다시 태어났다. 『쾌적한 만남의 장소 제공 및 깨끗하고 참신한 부대 이미지 제고』를 취지로 추진된 항공기 면회실은 개장과 동시에 견학, 면회 등 부대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대 명소로 자리잡아갔고, 이후 방

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인테리어 개선 등 유지보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비행단으로 면회오세요

제15혼성비행단의 자랑이자 명소인 항공기 면회실.

항공기 면회실을 접한 면회객들은 공군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평가와 함께, 다음 면회를 약속하고 간다. 장병들 역시 가족, 친지 혹은 친구나 애인이 면회 왔을 때,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는 명소가 있어 더 없이 즐겁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생산사업 (24)
- 개발사업 (9)
- 탐사사업 (2)
- 석유공사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군사관학교 14기, 제26대 공군 참모총장)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다가온 햇살이 예상롭지 않던 초봄의 어느 금요일 오후, 기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자리한 한 빌딩 앞에서 있었다. 지난 2002년 제26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맡은 바 임무를 마치고 전역, 현재 한국석유공사에 몸담고 계신 이억수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기자, 바야흐로 긴장감을 떨치기 위한 심호흡을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다. 얼마 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흐뭇하리라는 것을.

선입견은 깨지라고 있는 것일까. 온화한 표정의 이억수 전 총장님은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해둔 심호흡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편안한 분이였다.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건강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웃음). 예전의 우리 공군 장병들처럼 석유공사 직원들이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공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하셨는데, 특별히 공사에 지원한 동기가 있으셨는지?

나는 원주고등학교 출신인데, 원주에는 군부대도 많았고 선배들이 사관학교에 많이 지원했었지요. 방학에 모교 홍보를 나온 원주고 선배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왕 가려면 특별하게 공사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조종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하늘을 날면서 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던 것이었지요.

군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조종 생활이지요. 운전도 못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시작하다보니 침대에 누워서도 조종간을 상상하면서 연습하고...,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조종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다른 특기는 생각도 않고 비행 훈련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74년부터 '79년까지 블랙이글에서 특수비행(에어쇼)을 했어요. 지금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대대가 아니고 행사를 위해 각 대대에서 선발된 조종사들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팀이었는데, 한번 선발되니까 다음 해에도 계속 선발되더군요(웃음). 힘든 훈련 등 어려웠던 순간을 이겨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비행종료 보고를 할 때, 그때의 보람이란...(웃음) 조종사에게 있어선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죠.

그리고 내가 대대장일 당시, 북한 조종사 이용평이 전투기를 타고 귀순을 했어요. 이때 안전하게 착륙을 유도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포상이 자동차 포니였어요. 비행기 조종은 잘 하는데 막상 자동차 운전을 못해서 운전병들이 차를 가지고 왔던 재미있는 기억도 있고...

군에선 참모총장으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전역 후 석유공사에서도 인기는 물론 실적까지 매우 좋으신데요. 사장님만의 조직 운영이랄까... 리더십에 대한 신념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공군 장병들과 석유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주어서 그런 것이지요.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뭐든 바르게 하면 불평도, 잘못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인화』입니다. 최근 석유공사는 유전이 10개가 늘어나고, 생산량도 배 이상 느는 등 전망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신이 다르고, 전공이나 특기도, 환경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도 공동의 목표 안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인화 단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올바름과 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앞으로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후배 장병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일에 집중하느라 이 질문에 할 대답을 많이 잊어버렸는데(웃음). 하지만 늘 공군은 생각하고 있지. 나는 우리가 작지만 강한 공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라크전에서 입증되었듯 현대 전쟁에서 핵심적인 전력은 공군입니다. 내가 공군에 있을 때 3가지를 강조했어요. 『Well train, Well maintain, Well motivate』 훈련을 잘 시키고, 무기체제 정비를 잘 하여 향상시켜 가고, 장병들의 동기부여가 잘 된다면 훌륭한 대한민국의 공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 장병들은 늘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이를 잡는 것은 그때까지 준비한 사람의 몫이거든요.

『너무 이기려고만 하면 결국 지게 된다』는, 인화를 강조하며 덧붙이신 말이 컷가에 맴돈다. 그리고 기자가 만난 모든 석유공사 직원들이 이역수 사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습에서 그의 놀라운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 하나를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

객원기자 남 주 미

항공안전, 언제나 맑음

제19전투비행단 대위 문성호

두꺼운 내복에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도, 어디선가 스며드는 냉기에 움츠러들기만 했던 추운 겨울날 새벽, 해도 뜨지 않은 영하의 활주로와 매서운 칼바람. 작업장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렇게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날들이 엇그제 같은데...

언제부턴가 내복을 입지 않고 출근해도 괜찮은 날씨와 풀빛이 번져 가는 산과 들에서 기다리던 봄의 향기가 전해져 온다.

달갑지 않은 봄 손님들

물론,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단에서 봄은 『황사』, 『안개』, 『춘곤증』 등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불청객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가 봄철 항공안전활동에 주요 변수가 된다.



첫 번째 손님, 황사

『황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과 황토에서 불어오는 모래와 먼지바람으로, 강한 햇볕을 받아 날리기 쉬운 상태가 된 모래와 먼지가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가 생기게 되면, 항공기 운행 시 조종사의 시야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공기중의 미세한 먼지가루는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항공기의 전자/기계 장비에 이상을 일으킬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봄철, 황사경보가 확인되면, 항공기 정비 최일선 정비사들은 완벽한 비행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황사경보는 황사의 농도에 따라서 3가지(정보,



황사가 불어닥친 비행장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단에서 봄은 「황사」, 「안개」, 「춘곤증」 등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불청객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가 봄철 항공안전활동에 주요 변수가 된다.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는데, 정보가 발령되면 정비사들은 당일 비행에 투입되지 않는 항공기들과 장비들을 엄체호와 격납고 등 건물 안으로 대피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게 된다. 또 이때엔 정밀부품의 실외작업이 금지되며, 비행을 위해 실외에 대기중인 항공기들도 캐노피를 닫고, 각종 분진 방지용 보호커버를 장착하게 된다.

황사가 심해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모든 항공기는 엄체호로 대피, 보호커버를 장착하며, 정밀부품 등은 방진시설이 되어있는 작업장으로 옮겨져 점검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손님, 안개

봄철이 되면 안개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우리 공군은 대도시 인근의 호수나 강 주변에 위치한 비행단들이 많아 안개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통, 수증기로 인해 관측지점으로부터 1,000m 이내의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 안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시속 수백Km로 움직이는 전투기의 속도를 감안하면, 아무리 약한 안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진다.

따라서 안개가 낀 날, 정비요원들은 안전을 위해 발광(發光)유도복을 입고 항공기를





황사에 안개에, 꽃샘추위까지... 우리 나라의 봄은 변덕이 심하다. 하지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국 하늘을 지켜나가는 공군의 항공작전엔 한치의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그리고 정비요원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완벽한 정비지원작전에 대한 의지를 지켜나가는 이상 『항공안전, 언제나 맑음』이다.

유도하고, 반사경과 활주로 상의 항공기 유도등(Load Light)을 수시로 점검, 멀리서도 활주로의 윤곽이 잘 드러나도록 만든다. 이 작업이 있기에 짙은 안개 속에서도 항공기들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 손님, 춘곤증

봄이 되면 겨우내 낮은 온도와 적은 운동량으로 움츠러들었던 몸이, 높아진 온도와 길어진 낮 시간에 맞춰 다시 적응하게 되는데, 이때 『춘곤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의지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인 춘곤증을 굳이 『안전 위협요소』로까지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안전』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모든 활동들의 주체가 바로 사람인 이상,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생리적 혹은 심리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들은 춘곤증 역시 황사, 안개와 더불어 봄철에 발생하는 주요 안전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춘곤증 관련 각종 사고 사례, 줄음 퇴치법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이완을 방지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간다.

항공안전, 언제나 맑음!

황사에, 안개에, 꽃샘추위까지... 우리 나라의 봄은 변덕이 심하다. 하지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국 하늘을 지켜나가는 공군의 항공작전엔 한치의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그리고 정비요원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완벽한 정비지원작전에 대한 의지를 지켜나가는 이상 『항공안전, 언제나 맑음』이다. ☺



줄음을 쫓기 위해 스트레칭 으샤

『조종사를 구출하라!』

제6탐색구조전대 요원들

공군에는 자줏빛 베레모를 쓴 특수부대가 있다. 바로 제6탐색구조전대(이하 6전대).

6전대의 임무는 적지에 떨어진 조종사를 찾아내어 구출(SAR : Search and Rescue)하는 것이다. 한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리고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적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종사를 구조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무다. 무엇보다 아직 살아 있는 우리의 전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6전대의 정신이다.

여타의 특수부대 임무가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라면, 6전대의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별한 부대인 것이다.

Purple Beret, 항공구조사

자줏빛 베레모를 쓴 이들을 『항공구조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두 부사관이다. 구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고립되는 상황은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 험한 산악지대,





바다 한가운데, 심지어는 적에게 포위된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공수훈련, 스쿠버 다이빙, 혹한기 극복 훈련, 은폐, 도피, 탈출, 산악구조, 생환훈련, 적 제거 등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간단한 외과 수술과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매년 항공구조사를 지원하는 젊은 부사관들이 많지만, 매년 지원자의 반도 안되는 최정예 소수만이 마지막까지 훈련을 통과해 자줏빛 베레모를 쓰게 된다.

6전대의 베테랑 김종만 원사에게 물어보았다. “극한의 상황에서 조종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대변에 단호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무조건 구출해 낸다. 설령 구조사의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조종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헬기 조종사와 항공구조사, 결론은 『팀워크』

탐색구조임무(SAR)라면 항공구조사를 떠올릴 수 있지만, 항공구조사가 6전대의 전부는 아니다. 6전대의 마크는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색, 희생을 의미하는 흰색, 그리고 6전대의 『날개』인 헬기가 그려져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를 구출해야 하는 6전대 임무의 특성상, 다양한 임무 환경에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빼놓고서 6전대를 말할 순 없다. 고립된 조종사에겐 HH-60과 HH-47 헬기의

육중한 엔진소리가 바로 생명의 소리이다.

24시간 비상출동을 위해 대기하는 6전대의 Alert 팀의 최소인원은 항공구조사 2명, 헬기 조종사와 부조종사, 정비사 등 총 5명이다. 물론 상황과 임무 성격에 따라 장비와 인원 규모는 달라지지만, 서로를 100% 믿는 팀워크는 필수 요소다.

출동비상벨이 울리면 주간에는 15분, 야간에는 30분 안에 헬기가 이륙해야 한다. 실제로는 5분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난다. 단, 몇 초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시에 조종사 구조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6전대는 추락한 조종사가 보내는 구조신호를 탐지하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적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기 위해 계곡으로 초저공 비행(NOE : Near On Earth)을 해야 한다. 야간임무일 경우에는 조명과 통신을 모두 끄고 오직 조종사의





감각에 의지해 계곡사이를 날아가야 한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조종기량과 대담함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완벽한 팀워크가 임무의 핵심이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헬기 조종사의 숙련된 조종기량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용기있는 항공구조사라도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칠혹같은 바다로 내려갈 수 없다. 믿음, 오직 그 한 가지로 항공구조사는 헬기에 연결된 줄 한 가닥에 몸을 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진다. “비상대기중인 조종사 강동철 소령의 한 마디에서 6전대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임을 알 수 있다.

1958년 창설, 5,000명의 생명 구조

1958년 제33구조비행대대로부터 시작한 6전대. 평시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 육상·해상 사고 인명에 대한 탐색구조, 각종 환자 공



수, 수해 구조, 산불진화 등 다양한 대민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1984년 태풍 『셀마』로 인한 수해, 1993년 목포 민항기 추락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1년 서해교전 사태 등 국가 재난사고의 현장엔 언제나 6전대가 있었다. 창설 이후 지금까지 6전대가 구해낸 생명은 총 5,000명에 이른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각지의 긴급환자 공수를 위해 6전대는 대기하고 있다. 출동 사이렌은 전혀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6전대에겐 휴일은 물론이고 명절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이상하게 휴일, 휴가철, 명절기간에 비상출동이 더 많이 걸리더라”며 웃을 뿐이다.

퍼플 베레,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간다

『Anytime, Any place, Saving a Life!』

완벽한 팀워크로 생명을 살리는 특수부대 제6탐색구조전대. 이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상징인 자춧빛 베레모다. 실제 임무에서도 이들은 자춧빛 베레모를 쓰고 사지에 뛰어든다. 어두운 색으로 위장해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춧빛 베레모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구조될 사람을 중히 여기는 희생정신이 깃들여 있다. 그것이 바로 6전대의 정신인 것이다. ⊕

공군 민원봉사 금상 수상자 김기완 소령



제3훈련비행단 대위 천 명 념

공군은 올 해 처음으로 『민원봉사상』을 제정하고 민원업무에 모범이 된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첫 해 첫 금상 수상자로 선정된 3훈련비행단 시설대대장 김기완 소령을 만나 보았다.

민원봉사상의 첫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상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1년부터 3년 동안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계획처에서 기지개발 계획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신기지 건설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대정부 및 대민 협의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업무 특성상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했고, 공군의 입장과 민원인들의 이익을 잘 중재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터넷이나 서류, 전화 등으로 공군본부나 국방부에 제기된 민원 중 공군기지와 관련된 민원사안이 저에게 전달됩니다. 월 평균 10건 가량의 민원이 제기되는데 주로 기지이전이나, 고도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 관련법규나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면밀히 종합·검토하

여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2002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군용항공기지법에 항공기 및 항법장비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여건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군에서는 1년 6개월에 걸친 자체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문 등을 통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m에서 45m로 완화한 것으로 항공작전기지 주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비행 위험이 따르는 것은 아닌가요?

ICAO(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제안하는 차폐원리를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써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차폐원리 : 예를 들어 기지근처에 높은 산이 있다면 그 거리나 위치에 따라 그보다 낮은 건축물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설장교로서 이러한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 사람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무감실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며 관련법규를 공부했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공본 여러 부서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요즘은 민원이 점차 조직화·집단화되고 법률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대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밤잠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민원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민원이 제기될 때, 그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리에 늘 골머리를 앓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이나 긍지를 느낄 때가 있다면?

제가 한 일이 제가 몸담은 공군과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눈물로 40분간을 호소하던 아주머니에게 해당 부대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

해 준 일이나, 건설교통부와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11비의 주활주로 재포장 비용을 200억원 범위 내에서 분담하게 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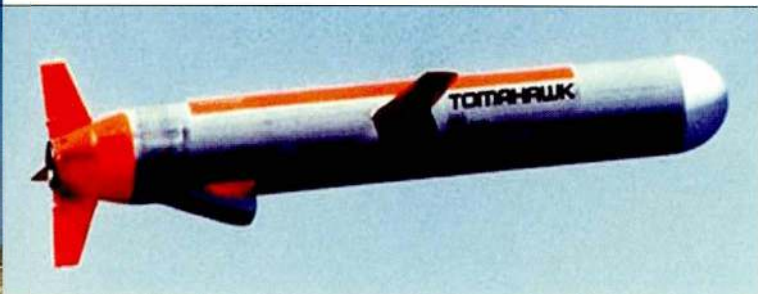
오랫동안 민원업무를 보아오면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의 원칙이 있다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하는 생각으로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듬고 어루만진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민원인을 진정한 공군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순항미사일 (Cruise Missile)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순항미사일이란?

순항미사일은 지·해상 초저공비행이 가능하고, 표적을 우회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방공레이더에도 잘 포착되지 않는 현대전의 최신 무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이 개발한 V-1호가 시초이며, 1967년 중동전쟁 때 이집트 함정에서 발사된 소련제 스틱스 미사일이 이스라엘 구축함 에이라트를 격침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서방국가들의 본격적인 개발 참여가 시작됐다. 이후, 미국이 제트기관의 소형·경량화 및 고성능 유도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순항미사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현대전의 전략 및 전술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순항미사일의 대표 격인 미국의 토마호크를 중심으로 순항미사일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개발배경

1970년대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고, 베트남전에서의 항공기 대량손실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위해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1970년도 미 해군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토마호크는 1982년 대함미사일의 성능시험에 성공하고, 1983년에는 잠수함용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1984년 수상함 탑재용 대지공격미사일을 개발한데 이어, 1987년도에는 핵탄두 탑재용 대지공격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종류(토마호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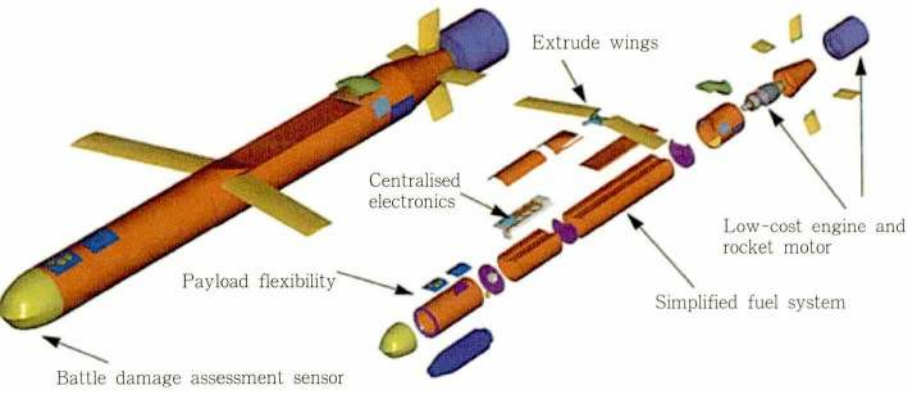
· 지상발사 토마호크 : 핵탄두를 탑재하여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중거리용 미사일로 개발되었다. 80년대 중반 서독에 배치되었으나, 핵무기 감축계획으로 1991년 서독에서 철수하였다.

이 미사일은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이동되므로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사정거리는 2,500km, 명중률은 반경 3~10m이다.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핵탄두 탑재 토마호크보다는 재래탄두 탑재 토마호크를 사용, 전략거점만을 정밀타격하는 방식이 요즘의 추세이다.

· 해상발사 토마호크 : 이 미사일은 수상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지상공격이나 함정공격에 이용되며, 목표물 1,000km 정도까지 접근해야 발사가 가능하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는 터보팬엔진이 가동되기 전까지 부스터를 사용하므로 멀리서도 볼 수 있으며, 이때 잠수함 위치노출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 해상발사 토마호크와는 달리 발사직후 터보팬엔진이 가동된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AGM-86과 이것의 성능개량형인 AGM-129, 러시아의 AS-15(KEN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디지털 지도 보며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 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 : 지형대조 방식이라고 하며, 주요 지점의 디지털 지도를 미리 입력받아 그 지점을 지나면서 위치를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도 방식이다. 미사일의 공격경로는 위험이 많은 지역(대공사이트, 공군기지 등)을 피하여 미리 계획되고, 경로상의 주요 지점을 TERCOM 위치보정점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을 지나면서 위치를 수정한다. TERCOM 위치보정점 사이에는 관성유도를 사용한다. 미사일은 탑재된 능동레이더 고도계로 지형을 읽은 후, 미사일과 지면과 고도를 측정하여 20m~100m고도(해상 20m, 평지 50m, 산악지형 100m)를 유지한다. TERCOM 위치보정점에서는 레이더고도계로 지형을 읽고, 기압고도계로 해면고도를 측정하여 그 차이로 현재 지형의 높이를 측정하여, 여기서 얻은 높이 정보와 미리 입력된 디지털 지도를 비교하여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TERCOM 유도 방식의 단점은 공격 전 디지털 지도를 입력해야만 하는데 사전에 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 주요 지점 영상을 얻은 후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 DSMAC(Digital Screen Matching Area Correlation) : 지형대조 방식에 의한 정확도 향상이다 표적에 접근하는 종말비행단계에 표적을 포함한 화면의 프로그램과 미사일 관측값을 조합, 대조함으로써 순항미사일의 정확도를 10m 이하로 하려는 것으로 **화면조합 방식**이라 한다.

· 기타 : 관성, 능동/수동 레이더, GPS 유도 등

맺음말

잠수함과 함정 및 비행기에서 전천후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은 작은 횡단면과 저공비행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우며, 장착한 터보팬 엔진이 열을 거의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 탐지도 어렵다.

최신형은 위성으로 유도되며 목표지역으로 유도하는 컴퓨터 지형 추적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순항미사일의 최고 장점은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적지에서 이격된 함정이나 B-52 폭격기에서 발사된 뒤 소형 제트엔진의 작동으로 음속속도로 목표물에 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엔진, 유도장치 및 연료 적재로 탄두 크기가 제한되며, 철근 콘크리트 목표물에 대해서는 위력이 잘 발휘되지 않는 단점이 개선점으로 남아있다. ⬇



유럽 최고의 우주국 『프랑스』

전발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지원담당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 가장 빨리 우주프로그램에 착수한 나라로서 1965년에 이미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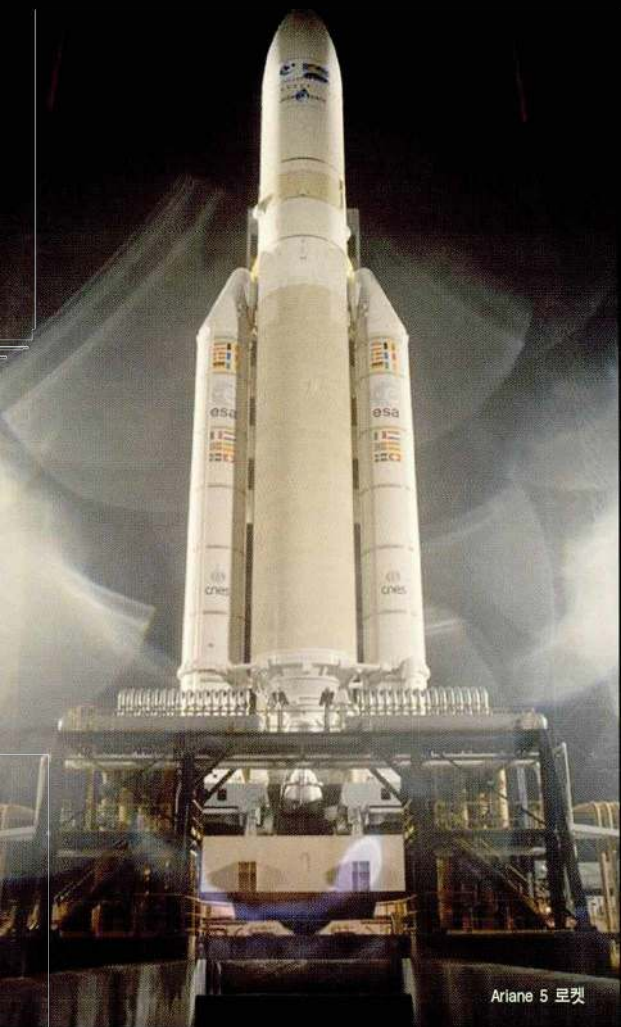
프랑스의 우주개발엔 유럽의 독립과 자주성을 증시하는 프랑스의 외교정책이 그대로 반영, 독자적인 Ariane 로켓개발 등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큰 우주산업 규모를 자랑하며, 우주개발에 정부의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우주개발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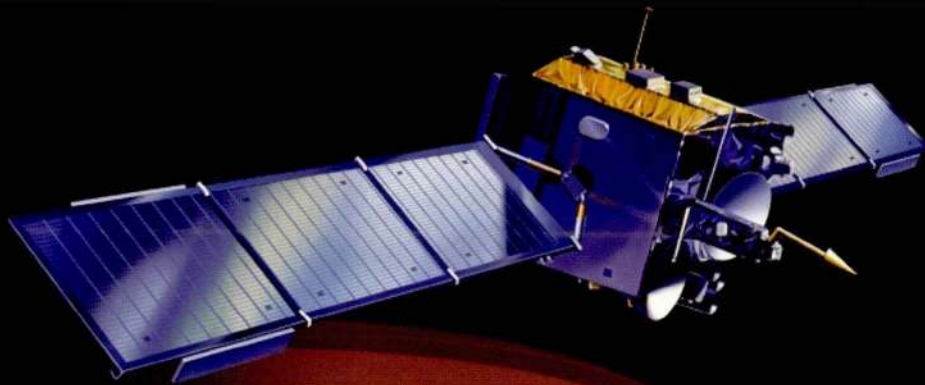
◎ 국립우주연구소(CNES)

프랑스 우주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우주연구소(CNES :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는 국가적 우주활동 발전을 위해 정부주도로 1962년 설립되었다. CNES의 연구는 인공위성 기술과 우주공간 이용능력을 발전시키고, 우주탐험 준비를 위한 기술혁신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SA(European Space Agency : 유럽우주기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주요 추진 중점사업은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Ariane 로켓 개발계획, 통신위성 개발, 원격지구탐사 부문이다. 약 2,350여 명의 연구원이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Ariane 5 로켓



◎ 국립우주연구소의 출자회사

CNES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통한 우주 산업 활동은 프랑스 우주개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출자한 회사 중에서 특히 지명도가 높은 곳은 Ariane 로켓의 제조 통합 및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Arianespace社이다.

Arianespace社는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나 프랑스가 전체의 64%를 투자하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군사위성

◎ 軍 통신위성

국영통신회사인 프랑스·텔레콤사가 운영하는 통신위성 시스템으로 국내 및 해외를 연결하는 통신서비스에 사용되며, X밴드의 군사용 중계기가 탑재되어 있다. 제1세대 위성인 Telecom-1A, 1B, 1C는 1984~1988년에 발사되었고, 성능 개량된 제2세대 위성 Telecom-2A, 2B, 2C, 2D는 1991~1996년에 발사되었다. 제3세대 위성은 Syracuse로 향후 발사할 예정이다.

◎ 조기경보 위성

조기경보 위성은 120kg 급의 소형위성인 SPIRALE-1호, 2호 총 2기 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Ariane-5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 정찰위성

정찰위성에는 광학정찰위성인 Helios 시리즈와 전자정찰위성인 Cerise 계열이 있다.

유럽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인 Helios-1A는 Ariane 로켓에 의해 1995년 7월 7일 발사되었

으며 그 후 수명도태를 대비하여 Helios-1B를 1999년 12월 3일 발사하였다. 총 중량 2.5ton이며 1m의 고해상도를 가진다. 기존 1m의 해상도를 능가한 차기 위성인 Helios-2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발사체

Ariane 로켓은 유럽의 Arianespace社에 의해 제작되어 1988년 7월 최초로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우리별 1, 2호』와 『무궁화 3호』 발사체로 사용되었다.

Ariane-4와 Ariane-5 로켓은 각각 5ton, 16ton 무게의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인공위성 발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우주센터

◎ 기아나 우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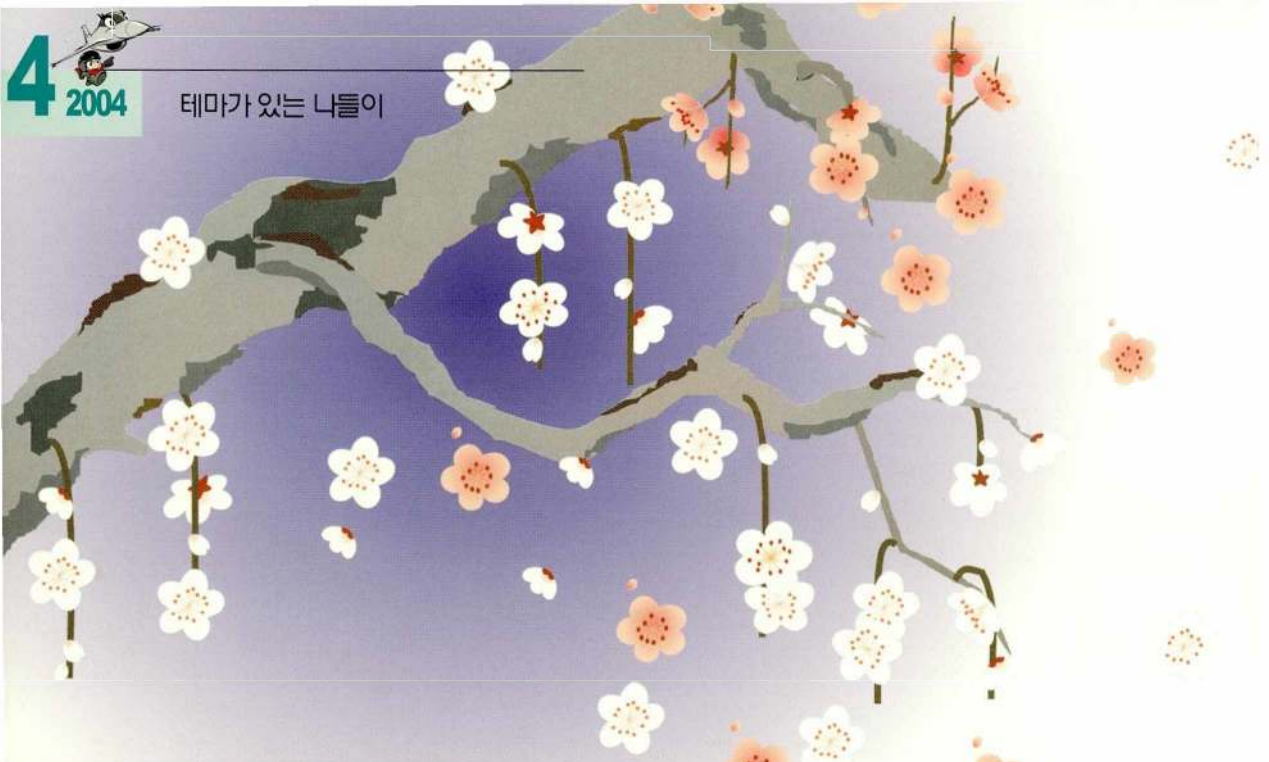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에 설치된 우주센터로서 CNES 소유이며 ESA 및 Arianespace社가 사용하고 있다. 저위도(북위 5°)에 위치하고 북동쪽이 바다에 접해 있어 세계의 대형 발사장 중에서도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 툴루즈 우주센터

프랑스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위성시험설비, 추적관제 설비 및 연구개발부문 설비가 있다.

◎ 에브리 우주센터

파리근교에 있는 센터로 로켓 개발부문 설비가 있다. ESA 위탁에 의해 Ariane 로켓개발 작업이 행해진다. Ⓢ



남도기행

불어라 꽃바람!

제3훈련비행단 중위 **조요진**

꽃망울을 맺은 채로 흑한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는 동백이나, 雪中梅(설중매)라 불리며 눈보라 속에서도 꽃잎을 띄우는 매화는, 과히 봄의 전령사로 불릴만하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한 여행지로 여수 오동도와 광양 청매실 마을을 찾은 것은 이 계절에 꽃구경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모두의 생각에서 였다.

수려한 포구 여수, 그리고 오동도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여수는, 찰랑이는 물결이 아름다운, 이름만큼이나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의 도시이다. 도시에 들어서자 동백꽃 벽화와 동백나무 가로수가 첫 눈에 들어왔고, 바닷가로 다가서자 해풍에 밀려오는 갯내음 속에 늘어놓은 좌판을 사이에 두고 시끄럽게 흥정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 곳은 남도의 여느 포구와는 달리 낮은 구릉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둔 채, 낮은 서구식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시인 박재구는 그의 책 「박재구의 포구기행」에서 麗水(여수)를 旅愁(여수)라고 표현하며 이곳의 멋스러움이 외려 길손의 시름을 자아낸다고 여수의 풍광을 자랑하였다.

동백섬으로 유명한 오동도는 바로 이 여수시의 남단에 위치한다. 이미 방파제로 연결되어 섬이라고 하기에 멋쩍긴 하지만 이 방파제를 가족들 손을 잡고 걸어서, 또 어떤 관광객들은 동백관광열차에 몸을 싣고 오동도로 들어갔다.

오동도는 그야말로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가득하여 일년 내내 푸른빛이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 섬에 다다르면 울창한 동백나무 숲 사이로 난 아담한 산책로를 걸으며 봄의 전령사로 다가온 동백꽃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윤기 흐르는 진녹색 잎사귀 사이로 붉은 혀를 내민 듯 요염하게 피어 난 동백꽃이 겨우내 모진 추위와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저리도 강한 빛깔로 몸과 마음을 움츠렸던 사람들을 맞이 한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아쉽게도 계절이 조금 일렀는지 섬이 붉은 동백꽃으로 뒤덮인 절경은 볼 수 없었다. 한 수 시로나 마음을 달래볼까.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이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옥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되어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 서정주 님의 '선운사 동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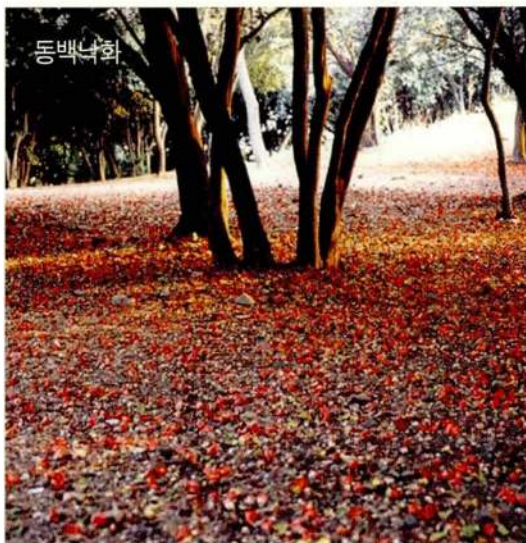
가장 절정일 때 송이 썰 떨어진다든 동백꽃은 그래서 나무아래 떨어져 있어도 아름답다. 이 꽃송이를 밟지 않으려고 애쓰며 섬의 정상에 올랐다. 오동잎처럼 생겨 오동도라 부른다는 섬의 전경과 선경과도 같은 한려수도의 사람다운 절경이 눈앞에 들어왔다. 가슴이 탁 트였다.

여수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절경은 향일암(向日庵:해를 향한 암자) 동백꽃이다. 여수시에서 돌산대교를 건너 돌산도로 들어가면 섬의 최남단 절벽위에 저 멀리 동지나해를 향해있는 자그마한 암자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향일암이다. 이 암자는 이른 아침에 오르면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 일년 내내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암자 주변의 기암절벽 사이에 동백나무가 지천으로 늘려있고 시원하게 뻗은 가지 끝에 피어오른 꽃봉오리는 화사한 봄 햇살을 받아 향일암 부처의 입술보다도 더 붉게 보인다.

동백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더 이상 차지 않은 걸 확인하고서는 매화를 찾아 물으로 발길을 돌렸다. 돌산도에서 맛본 돌산명물 갓김치는 함께 한 어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으리라...



돌산대교



동백낙화



향일암(向日庵 :해를 향한 암자)

매화꽃 향기로운 청매실 마을

옛날 중국고사에 한노인이 강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잎을 따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곳에 신선들이 노니는 무릉도원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매화꽃 꽃이파리들이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 청매실 마을을 찾았다.

청매실 마을이 매화꽃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30년 전, 지금의 청매실 농장의 주인인 홍쌍리씨가 밤나무 밭에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심기 시작할 때 매화나무가 지금은 10만 그루에 달해 봄이 되면 백운산 자락이 온통 하얀 꽃송이로 뒤덮인다. 이때 열리는 것이 바로 매화축제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의 경쟁하듯 자태를 뽐내는 매화가 절정에 달할 때엔 이곳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아직은 조금 일러 한산한 매화농장을 가족들과 거닐었다. 꽃향기에 취해 정신이 아득한데 불현듯 불어오는 바람에 눈송이처럼 휘날린 꽃잎. 백일몽이라도 꿈 것인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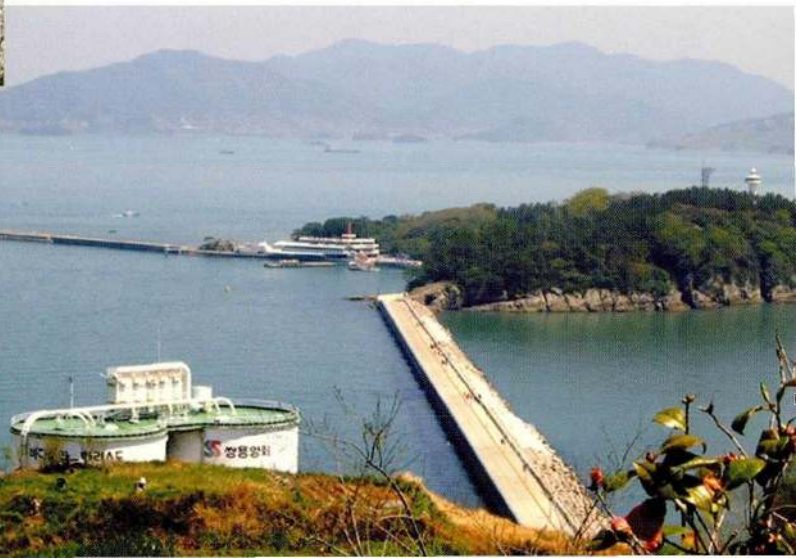
곳이 무릉도원인가 싶다. 이 마음을 알았을까?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말한다.

나 찾다가 / 텃밭에 /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 예쁜 여자랑 손잡고 / 섬진강 봄물을 따라 /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청매실 마을의 입구에는 높게 솟은 솟대 아래 장독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다. 화사하게 매화가 피어 있는 동안, 그 장독 안에서는 매실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장독 속에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매실이 어떻게 익어가는지 궁금하다면 장독마당 앞 시식코너를 둘러보시라. 매실 장아찌, 매실 고추장, 매실 된장 등 새콤달콤한 매실의 변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매화의 화사함에 취해 꽃길을 거닐다보면,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 사각 썩' 시원한 소리를 내는 대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눈꽃송이 훑날리는 듯한 매화 천지에 푸른 대나무 숲. 과연 '취화선'의 주인공 오원 장승업이 풍류를 즐겼을 만한 장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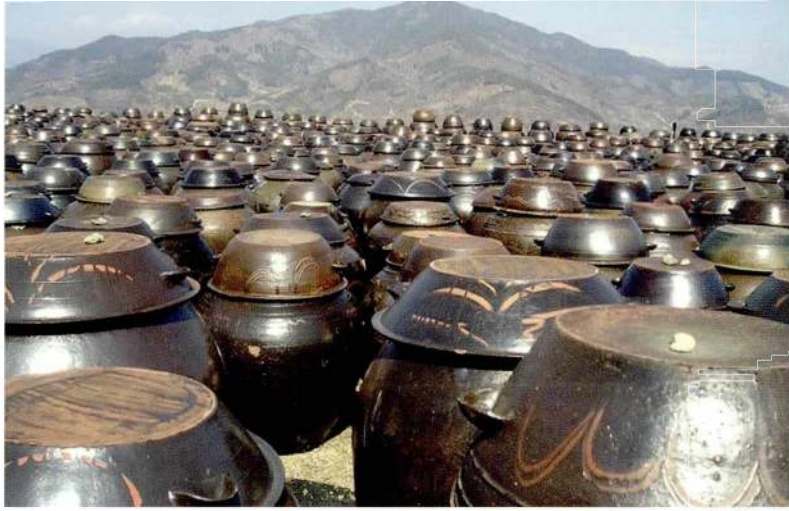
청매실 마을의 정상에 서면 기나긴 겨울의 흑한을 이겨내고 일제히 피어난 매화 사이로 섬진강의 초록빛이 도드라져 보인다. 초록빛 강물위에 떠내려가는 꽃잎을 보고 있노라니 불현듯 영문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듯 하다.



청매실 농원 매화만개

동백섬으로 유명한 오동도
(여수시의 남단에 위치)

청매실 마을 장독마당
(장독안에서는 매실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섬진강변에 지금은 매화가 한창이지만, 곧이어 벚꽃이 핀다. 그때가 되면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섬진강변 국도는 꽃구경 온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또 한번 그 대열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봄맞이 여정을 마치고 오는 동안 진한 꽃향기 마냥 온 몸을 휘감는다.

이제 곧 개나리가 필 것이고, 진달래, 벚꽃,

배꽃, 철쭉이 만개하여 상춘객들을 기다릴 것이다. 일상을 털고 남도로 꽃구경 가자.👉

남도 봄꽃축제 안내

- **광양 매화축제(광양 매화마을)** : 3월 중순
 - 장독마당, 왕대숲, 매화동산 등 볼거리 다양, 매실 장아찌, 고추장, 된장 등 먹거리를 맛보는 재미
- **산수유꽃 축제(지리산 온천 관광지 일대)** : 3월 하순
 - 구례 산동면 상위마을 유명, 산수유떡치기, 산수유꽃길 걷기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개나리 축제(목포 유달산)** : 4월 초순
 - 고속 전철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 더욱 성대하게 열릴 계획
- **진달래 축제(여수 영취산)** : 4월 초순
- **화개장터 벚꽃 축제(구례/하동 일대)** : 4월 초순
 - 구례~하동 섬진강 길 80리 벚꽃길, 지리산 하동-쌍계사 십리 벚꽃길
- **진해 군항제(진해)** : 3월 하순~4월 초순
 - 충무공 승전 행차, 해군 군악대 경축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해군진해기지 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개방
- **동백연(전북 고창 선운사)** : 5월 중순
 - 향토의 순수한 문화잔치, 문예인 간담회,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등 개최
- **지리산 철쭉제(전남 구례군 화엄사 집단시설지구, 노고단)** : 5월 하순~6월 초순
 - 각설이 타령, 농악시연, 캠프파이어, 산신제 등 행사, 미스철쭉선발, 등산대회, 등반대회 실시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림 : 김 영 은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 없이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또 다시 한참을 걸다가 호수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시원한 물 속으로 푹푹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그만 길은 물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는 설른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친구는 이번엔 둘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수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뺨을 때리고, 또한 목숨을 구해 준 친구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까는 모래 위에 적더니, 지금은 왜 둘에다가 새기는 것이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 사실은 모래에 적어야 해. 숲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실을 둘에 새겨야 해.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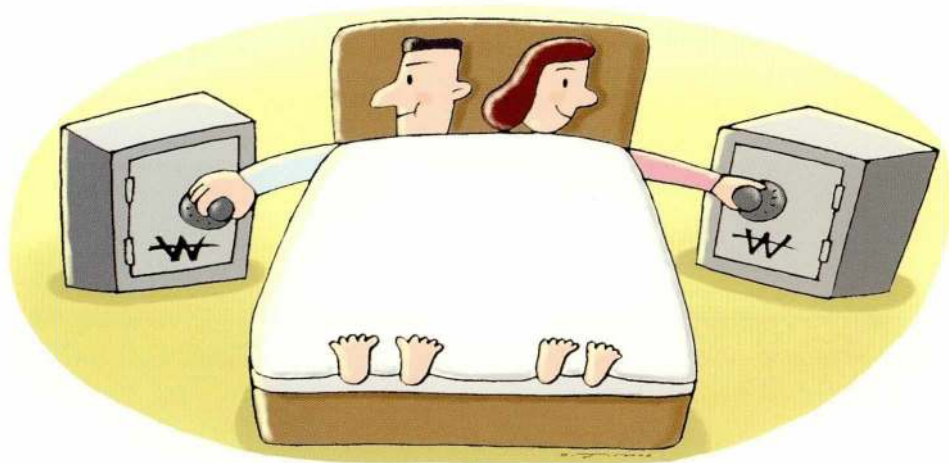
인간관계와 돈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귀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계 부채가 늘고 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급을 받는 군인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초급간부들의 경우는 유흥비와 가족들 때문으로 요약된다. 유흥비로 쓴 것이야 본인이 방탕하여 그런 것이므로, 응당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족 등 때문에 빚이 늘게 되는 것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가까워도 재산문제는 따로따로

우리 사회는 아직 인간관계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돈 빌려 달라고 하소연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거절하기 힘들고, 빌려줬다가 안 갚는 경우에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물인정하다고 욕이나 먹기 십상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빚을 지게 되어도 응당 「가족이니깐」하고 도와려는 마음이 많다. 게다가 아쉬운 소리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선해 보이고 안 되 보일 수가 없는 얼굴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가족 등의 이름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무언가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제든 끌려 다닐 여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인간관계와 경제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인간관계와 경제문제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여도 남이 진 빚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친부모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가장 가깝다는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실, 법적으로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갚을 필요는 없다.

타인의 경제문제, 끼어 들지 않는 게 상책

다만, 법률에서는 소위 **외관의 법리**라는 것에 따라 인간관계를 경제문제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 즉, 가까운 사람인 경우 **채권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 타인의 경제문제에 얽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김 중위는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결혼 전에 진 빚이 1,00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이로 인해 괴로워하자 어느 금융기관 이냐고 물은 후 그 은행에 자신이 직접 1,0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이것으로 금전문제가 종료된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내의 빚은 1,000만 원 이외에 또 1,500만 원이 있는 것이었다.

김 중위는 처음엔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부부라 하더라도 경제

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중위가 정에 이끌려 1,000만 원을 아내 대신 내준 순간, 법률관계는 다소 바뀌게 된다. 남편의 신분으로 1,000만 원을 대신 내 주었다는 행위 자체가 부부로서 아내의 빚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이 김 중위에게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간에도 마찬가지다. 동생이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형이 은행을 찾아가 「동생이 틀림없이 갚을 테니 시간을 좀 달라. 일단 내가 한 3분의 1 정도는 갚겠다」라고 하며, 돈을 일부 갚은 경우가 있다. 형은 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뿌듯해 하며 은행 문을 나섰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동생이 빚을 못 갚게 되는 경우, 은행측의 요구를 형이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될 지도 모른다. 은행은 형의 진술을 보증 내지는 채무의 인수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와 경제문제는 별개

이와 같은 상식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절대 **타인의 경제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 아내니깐, 친구니깐, 형제니깐, 동료니깐 답답해서 자신이 나서 일부 해결을 한다든지 직접 금융기관에 해결을 보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히 놔두는 것이 낫다. 적어도 자신까지 끌고 들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일부를 갚아주고 싶더라도 현금을 본인에게 주고 은행에 갚으라고 하는 것이 낫다. 가족 등의 이름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무언가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제든 끌려 다닐 여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하여간, 인간관계와 경제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

황사철 건강관리

제3방공포병여단 대위 이철민

봄의 불청객 황사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

올해도 이 달갑지 않은 손님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낼 것이다. 불쾌감을 주는 탁한 공기와 뿌연 하늘, 외출이 꺼려 지며, 눈에선 자주 이물감이 느껴진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은 이 때가 되면 아예 한차례씩의 휴역을 치르게 되는데, 황사 기간 내내 재채기, 콧물 등에 시달리기도 하고, 일부 천식환자들은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황사가 오는 동안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린다.

황사(黃砂)란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서부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미국 서해안 지역의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걸친 드넓은 건조지역과 그 주변

에 있는 반 건조지역으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황하 상류와 증류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 3년 전부터는 이 지역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도 황사가 발원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심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황사, 사람에게도 기계에도 악영향

황사는 기관지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악화시키고, 모래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등 각종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 등 기존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시 시정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반도체 등 정밀 기계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황사가 예상되면 공군 기상전대에서는 황사의 정도에 따라 『황사 정보』, 『황사 주의보』, 『황사 경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황사 정보』일 때는 훈련이나 운동 등의 격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중지를 검토하게 되고 야외 근무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며, 긴소매 의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또 이보다 심한 『황사 주의보』가 발표되면 병력의 격한

야외 활동을 해야 할 때는 긴소매 의복을 입고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쓰는 것이 좋으며 부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준비,

일과 또는 외부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하며,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피부 관리를 위해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외활동을 통제하며 야외 훈련이나 항공기 등의 운항도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정도인 『황사 경보』가 발표되면 통상적인 실외활동을 중지하고 야외훈련이나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게 된다.

황사철 건강관리는 이렇게!

황사가 발생했을 때 일반 장병들이 명심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야외 활동을 해야 할 때는 긴소매 의복을 입고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쓰는

것이 좋으며 부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준비, 지급하여 착용하는 것도 좋겠다. 일과 또는 외부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하며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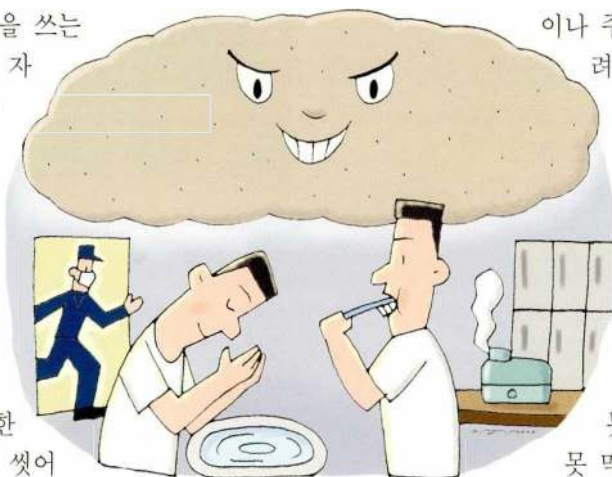
이 좋으며 피부 관리를 위해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황사 발생 시에는 사무실과 내무실의 창문을 닫아 모래 먼지의 유입을 막도록 하고, 옷에 붙은 먼지를 털고 자주 세탁하는 것도 좋겠다. 가습기도 실내 습도를 높여 먼지

가 물분자에 붙어 가라앉게 하기 때문에 가습기가 있는 내무실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가습기를 준비하지 못한 곳에서는 수건에 물을 적서 걸어 놓거나 바닥에 물을 뿌려 실내 습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있는 장병이라면 위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질병을 군의관

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심해졌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도 제때에 예방하지 못하면,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된다.



올해는 예년보다 황사의 빈도가 많고 그 정도도 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피할 수 없는 손님인 황사를 잘 맞이하도록 하자. Ⓣ

남부전투사령부 마라톤 동아리

『남달사동』

남부전투사령부 대위 윤형노

장비도 필요 없다. 일단 달려라!

『남달사동』이란 『남부전투사령부 달리기를 사랑하는 동아리』라는 뜻으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이란, 물론 부대 안을 열심히 달리는 것. 매주 몇 번씩, 동아리 회원들이 시원스레 달리는 모습으로 인해 남부전투사령부 장병들 사이엔 달리기에 대한 새로운 바람마저 일고 있다.

보통 동아리라 하면은 활동장소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장비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건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장병들이 서로 모여야 하는 시간도 맞춰야 하는 등 웬만한 열의가 아니라면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남달사동』은 이러한 어려움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모여서 달리면 된다. 매주 화요일 일과 후와 부대 체육활동 시간으로 정해진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특별한 약속이나 전달 없이도, 동아리반원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장병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자유로운 여건. 하지만, 목표만은 확실하게!!

보통 한번 뛰게 되면, 이들은 웬만해서는 멈추지 않는다. 30분, 1시간... 그래도 멈출 수가 없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



지 차오른 듯 보여도 목표한 지점까지는 반드시 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활동 여건이지만, 지난 1월, 출범 당시 정해놓은 이 원칙만은 반드시 이행한다. 우선 오는 11월 국방일보 마라톤 대회에 동아리반원 전원 참가, 완주를 목표로 잡고 있어, 단순한 조깅차원에서 달리기 아니라 항상 숨가쁜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달리기라는 게 혼자서 하게 되면 의외로 잘 안 되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좀 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달



리기를 시작하지만, 자신의 체력증진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규칙적으로 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하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달리게 되면, 힘들어도 일단은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축구나, 야구처럼 단체 운동도 아닌 달리를 굳이 동아리까지 만들어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동아리 반장 송인덕 원사의 말이다.

동아리 출범 당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11km 정도 가볍게(?) 달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목표 거리를 늘려 half 마라톤 거리인 20km 정도를 달려내기에 이르렀다. 장난 삼아 『남달사동』에 뛰어들게 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낙오하게 되어 있다.

건전한 모임으로 차별화

『남달사동』은 단순히 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다. 요즘들어 단순 재미를 찾고자 결성된 모임들이 즐비한 가운데서도 『남달사동』은 어디까지나 건전하면서도 진취적인 모임을 지향한다. 열짱·몸짱 열풍에 매도되어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은 주기적인 달리를 통해 피

동아리 활동이란, 물론
부대 안을 열심히 달리는 것.
매주 몇 번씩,
동아리 회원들이 시원스레 달리는
모습으로 인해 남부전투사령부 장병들
사이엔 달리기에 대한
새로운 바람마저 일고 있다.

로·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나간다.

한편, 『남달사동』은 동아리 반장인 주임원사 송인덕 원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영내 병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범상치 않은 활동 때문에 부대 내에서 그들의 활동상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이다. 또한, 동아리원 간의 높은 결속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달리를 하는 모임에 그치지 않고, 민간 동호회와의 교류, 인근 지역 복지단체 봉사활동 등 폭넓은 활동을 실시,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주도하고 있다.Ⓜ

오페라 산책 (2)



지난 호에서는 오페라의 유래와 역사, 내용에 따른 구별법, 국가별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유명 작곡가와 그의 대표 오페라들을 중심으로 오페라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진주 기독교 음대 교수 이 정 실

지난 호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목록을 잠시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실상,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오페라는 한계가 있다. 1년 혹은 2년에 한번이라도 국내 공연을 하는 작품을 찾아봐도 그 가지 수는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공연을 통해 그나마 자주 접할 수 있는(유명하고 인기 있으며, 상식 수준의) 오페라 6편을 선택해 소개하기로 한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호색자인 알마비바 백작이 그 시종 피가로의 약혼녀이며 백작 부인의 하녀인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피가로의 재치에 수잔나와 백작 부인의 피가 더해져 마침내 백작의 마음을 부인에게 되돌리는데 성공한다는 내용으로 피가로의 코믹 연기가 웃음을 자아낸다.

1787년 프라하에서의 초연은 대성공으로 도시의 모든 곳에서 이 곡의 선율이 들려온다고 할 정도의 호평을 얻었다. 모차르트는 14세 때 당시 시스티나 성당에서 악보 반출을 금지하고 있던 10분이 넘는 다성 음악(현

재보다 훨씬 많은 성부의 합창곡)의 비극 『미제레레』를 단 한번 들은 후 암보하여 기보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길 만큼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베토벤 『피델리오』

억울하게 옥에 갇힌 남편(스페인의 귀족) 플로레스탄을 구하기 위해 부인 레오노라가 피델리오라는 이름으로 남장을 하고 간수 로코의 조수로 들어가, 로코의 딸 마르첼리나의 구애를 피해가며 남편의 무죄함을 밝혀내는 감동적인 내용이다.

베토벤은 여러 장르에 걸쳐 수많은 걸작을 남긴데 반하여 오페라는 오직 이 한작품밖에 남기지 않았다.

초연 당시, 컷병이 악화된 베토벤은 첫날만 지휘대에 섰고 이튿날부터는 콘서트마스터인 옴라우프가 지휘를 맡았다.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농장주의 딸 아디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구혼하는 순진한 농부 네모리노와 하사관 벨코레의 삼각관계 사이에 가짜 사랑의 묘약을 파는 돌팔이 약장사 둘카마라가 끼면서 벌어

지는 해프닝이 주 내용이다.

도니체티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는 부친에 반항해 군에 입대, 거기서 여러 편의 오페라를 작곡한다. 오페라 작곡자로 유명해지자 군에서 나와 정식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군이 그를 작곡의 길에 전념시키기 위해 그만두게 했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또한 도니체티는 놀라운 속필가로도 알려져있다.

바그너 『니벨룽겐의 반지』

신비의 금속인 『라인의 황금』으로 만든 반지와 투구를 두고 벌이는 신들의 싸움과, 영혼의 안내자 발퀴레의 이야기, 영웅 지그프리트의 모험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작품은 20년에 걸쳐 작곡과 중단을 반복하며 완성된 바그너 필생의 대작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부 『지그프리트의 모험』이 가장 유명하며,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공연하기도 한다.

베르디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춘희)』

『아이다』는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가 포로로 이집트 공주의 노예가 되어 이집트 장교인 라다메스와 사랑하게 되지만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함께 무덤속에 생매장 되는 비극적 내용이다. 높은 음악성과 아름다운 멜로디로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오페라 아이다의 매력. 카이로에서의 초연에서는 무려 32번의 커튼 콜을 받기도 했다.

베르디의 또 다른 유명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춘희)』는 고급 창녀 비올레타와 순박한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 사랑이 주 내용이다. 비련의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알프레도의 품에 안겨 숨지는 마지막 장면을 연출할 때, 똥똥한 가수를 기용하는 바람에 비극으로 끝나야 하는 무대에서 관중의 폭소와 야유가 터져 초연에는 실패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오페라, 가슴으로 느껴라.

지난 호에서부터 밝힌 것처럼 오페라는 결코 어려운 장르가 아니다. 물론, 오페라 공연을 위해선 오페라 가수, 악단, 무대장치 등 여러 가지 준비요소가 필요하고, 공연장에서 받은 작품설명 팜플릿에는 아리아, 레시타티브, 커튼 콜 등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오페라 용어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잠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자. 손님인 우리는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이나 조리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완성되어 나온 요리 『전체』의 맛인 것이다.

오페라 공연도 마찬가지다. 관객인 우리는 세부적인 창법(唱法)이나 연주법이 무엇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물론 잘 알면 좋겠지만), 듣기 좋고, 재미있으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 봄, 가족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오페라 한편을 감상해 봄은 어떨지... 🎭



『말』 한마디...



방송작가 함은선

말, 말, 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말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이 제법 많은 것을 보면 과히 말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작년 말, 극단의 호평을 받으며 개봉되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는 평범한 셉터리맨 한대수. 이유도 모른 채 어느날 갑자기 납치, 감금을 당하고 가족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게 된 그가 15년 후 풀려나 그 동안 왜 감금되어 왔는지, 누가 감금을 했는지를 찾으며,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간다...

근친상간 등 충분한 논란거리가 있었음

에도 내용이나 연기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해 낸 작품으로 흥행에서도 제법 성공을 했었다.

당시 직장동료와 이 영화를 본 후 함께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그른다.

“영화 말야... 대체 무얼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

“글세... 보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갖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난 그랬어. 마지막 부분에서 한대수가 스스로 혀를 자르잖아. 그게 영화 올드보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 영화는 말미에 한대수가 유년 시절,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 받고 소중한 이를 잃은, 그래서 결국 한대수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이우진의 이야기를 부각시킨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도 하고...

☆☆☆☆

이런저런 말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이 제법 많은 것을 보면 과히 말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

☆☆☆☆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

사실 당시, 영화를 보고 나서면서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이가 있을 수 있고, 하여 앞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자』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담지는 못했다.

다만 『그 영화 참 잘 만들었군』 하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며칠 전 아침, 불현듯 그런 생각을 떠올릴 기회가 있었다.

사무실 공기가 채 익숙하지 않은 아침 무렵...

문을 살짝 열면서 누군가가 말을 건넨다. 『케이 안드실래요?』

의례적인 질문이었음은 뻔한 상황이었으나 질문자의 의도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저 사람은 내가 거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일까, 아니면 거절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물어본 것일까?...

짧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thanks』에 『you're welcome』이 익숙해진 것처럼 『안 먹을래요. 고마워요』라고 답변을 했다.

무의식적으로 남발하는 『안』과 『못』

사소한 것이겠지만 만일 그녀가 『케이 드실래요?』라고 질문을 했더라면 혹시 결과는 달랐을까? 굳이 내키지는 않았더라도 자리에 함께 참석해 이야기라도 주고받지 않았을까, 혹은 좀더 유연한 대답을 그녀에게 건네지는 않았을까?...

그래, 그러고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아니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이미 『안』 혹은 『못』이라는 부정형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부메랑처럼 부정형의 답변들을 듣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부정형의 삶을 살고있는 것은 아닐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그녀의 『안 먹을래요?』를 듣고 왜 갑작스레 『올드보이』가 떠오른 걸까... 따지고 보면 그다지 큰 연결고리는 없는 것임에도 말이다.

집을 나서면서 아니, 집에서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다. 커피를 사든 하다 못해 전철표를 끊으면서도 아주 짧은 시간의 만남과 몇 마디의 말이 오가고...

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 참 즐거웠다』라는 기억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부정형의 말 쓰임이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나 역시 다른 이에게 좀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즐거운 아침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새삼,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하루다. Ⓣ

이야기라는 커다란 물고기의 매력

영화평론가 김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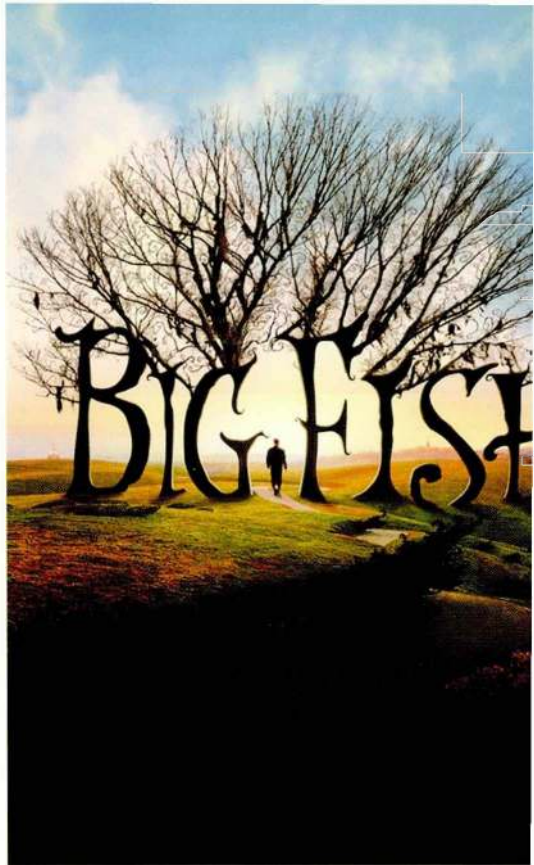
빅피쉬

판타지 영화의 거장, 팀 버튼

팀 버튼은 꿈·환상·동화의 마법사다. 유년 시절부터 강렬하고 비범한 상상력을 펼쳐 온 그는 손수 단편 동화를 습작할 정도였다. (그의 동화집은 『굴 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무시무시함과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그의 영화는 항상 남다른 장면을 펼쳐 주었다. <유령수업>의 유령 들린 집과 미니어치 마을, <가위손>의 눈 내리는 풍경, <배트맨>의 암울한 고담 시티와 선악의 양면, <슬리피 할로우>의 을씨년스러운 마을과 목 없는 기사 등은 그만이 남길 수 있는 특별한 화면과 설정들이었다. 비현실적이되 현실적이고, 황당무계하되 인상적이고, 천진난만한 듯하면서도 예민하게 뒤틀린 그의 영화는 언제나 가장 현대적인 감수성에 호소해 왔다. <해리 포터>와 <반지의 제왕>이 판타지의 대부로 군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는 판타지의 즐거움과 심오함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인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의 판타지 블록버스터와는 달리 팀 버튼에게는 미지의 세계와 모험담을 기록한 원작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었다.

허풍쟁이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나선 모험

<빅 피쉬>는 전작들에 질게 깔렸던 음울하고 냉소적인 분위기 대신 판타지의 이야기적인 보편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의 변신을



예감케 하는 작품이다. 허풍쟁이 아버지(앨버트 피니)가 싫어 몇 년째 왕래를 끊고 지내던 윌(빌리 크루덱)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온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이제쯤 진실을 말할까 하고 기대를 해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허황된 모험담만을 늘어놓는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이완 맥그리거)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을 헤집고 다닌 데다 남보다 빨리 자라는 성장병을 앓았고, 만능 스포츠맨에 발명왕이자 해결사였다고 한다. 또, 더 큰 세상을 맛보기 위해 거인과 함께 여행을 시작해 늑대 인간, 서커스 단장, 삼 쌍둥이 자매, 괴짜 시인을 만나고 운명의 여인과 로맨스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넋더리가 난 아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찾아 나선다.

빅 피쉬, 수많은 이야기들의 보고

이처럼 <빅 피쉬>에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보고가 천일야화처럼, 동굴 속 가득한 보물처럼 펼쳐진다. 전작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왜곡된 시각과 분열된 인물상을 탐구했던 반면, 이 작품은 수많은 이야기와 이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의 존재에 천착한다.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던 그 존재들은 누구였으며, 우리는 왜 그것들에 어린 시절 매혹되었는가. 그리고 성장과 함께 그 매혹들의 빛은 어떻게 바래지는가.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매혹적인 이야기들은 팀 버튼이 만들어 온 과거의 영화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현직 기자이자 에드워드의 아들인 월은 아버지가 지어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에게도 아버지가 위대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어릴 적에 천 번도 넘게 들려주던 모험담은 월에게는 거대한 뿌리였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기자가 된 후 월은 아버지의 입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꾼과 기자

여기서 아버지-아들의 관계는 통상적인 부자관계 이상의 보편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아버지의 구술은 환상과 욕망에 따라 이야기가 더해지거나 감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다. 그에 반해 아들 월은 정보와 사실을 다루는 『기자』라는 직업이다. 에드워드는 아들에게 “우린 둘 다 이야기꾼이지. 난 얘기를 하고 넌 글로 쓰고, 봐라 똑같잖니?”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꾼이 아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신문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근대적인 직업에 속한다. 아들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Fact)을 다루는 정보의 전달자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의 갈등을 벌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술 문학과 신문이라는 이야기의 갈림길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적 진실에의 향수

청년 시절부터 악동처럼 재기발랄하고도 허황한 이야기를 펼쳐 온 그는 어느덧 자신이 영화 속 아버지의 존재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듯하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이야기하기의 의미를 반추하고 싶어 한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에서 아버지의 편에서는 듯하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을 제 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훨씬 더 진실일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재미가 있다. 이야기가 제 공하는 즐거움, 즉 이야기의 쾌락이야말로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를 매혹시켜 왔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비록 비인간적인 존재들이나 공상적인 세계를 다루더라도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까닭은 인간에 관한 내밀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빅 피쉬>는 팀 버튼이 여전히 그 진실을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간보다 더욱 인간적인 세계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향해 계속 미끼를 던질 것임을 짐작케 하는 작품이다.📍

전역 100일을 앞두고

“『일병만 달면은 제대로 해야겠다고,』 막상 또, 일병이 되자
『지금은 좀 그렇고, 상병 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교육사령부 병장 김 성 환



꽃 피는 봄.

바로 이맘 때였다. 자대에 갓 배속받은-흔히 말하는 콧물 질질 흘리며 어리버리하던-때가 말이다. 이제 말년 병장이 되어 돌이켜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내 모습이 자못 신기하게만 보인다.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나만이 겪어야 하는 시련인 것처럼 비장한 각오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다잡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가슴에는 내무실장이란 배지를 달고, 내무실에서도 거의 최고참급에 속하는 지금의 나.

공군 입대, 시작은 좋았다

공군에 입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을 좌우한 가장 큰 이유는 타군에 비해서 자율적인 시간 여유가 많을 거라는 소문과, 공군차원에서 자기계발을 장려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이다. 군 생활 2년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의 시계추를 고정해놓은 채 허송세월만 하다가 전역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공군으로 맘을 굳혔다.

원래 사람마음이란 게 신년 초만 되면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번만은, 이번만은 하면서도 결국엔 얼마 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곤 하는 게 보통 아니던가. 군대에 갓 입대한 훈련병 때는 자대 배치만 받으면 어찌어찌 할거라고 밤마다 굳게 결심했었다. 그날만 오라고 말이다. 그러던 것이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일병만 달면은 제대로 해야겠다고,』 막상 또, 일병이 되자 『지금은 좀 그렇고, 상병 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결국 뒤돌아 생각해보면 계획만 무던히 잡았지,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계획만 세우고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태반이니, 따지고 보면 난 오히려 작심삼일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누가 그 긴 기간 동안 뭐했냐고 한다면 『이병 때는 자대적응하기 바빴고, 일병 때는 정신없이 일 배우기에 한창이었고, 상병 때는 이제 한창 물이 올라 열심히 일하기에 바빴고...』 혼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자니, 점점 스스로가 우습고 한심해져만 갔다.

말년 병장, 뒤늦게 정신 차리다

그렇다. 난 아무것도 하지않은 내 자신을 자위하기 위해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하기위해 군에 온 이상, 임무가 우선이지 자기계발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 언제나 업무 때문에 시간에 쫓겼던 것도 아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TV앞에 앉아있기 일쑤였고, 아니면 동료들과 떠들고 놀기에 바빴다. 도서관은 늘 개방되어 있었고 독서실 문도 항상 열려있었지만 그곳에 나는 없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용어로 말하자면 난 NATO(No Action Plan Only)주의적인 인간이었던 것이다.

과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군대 문화에서 탄생했던 용어인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은 오늘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다. 이제 군 생활은 그다지 불합리하지도 부조리하지도 않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람 있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럼에도 군 생활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은, 타성에 젖은 스스로의 나태함일 뿐이다.

새로 시작하는 100일

이제 전역까지 100일 남짓 남았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어찌 한참 때와 비교할쏘나, 일단, 후회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나간 800일보단 남은 100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라』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자. 오히려 군 생활을 서서히 마무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다.

100일이란 기간은 결코 짧지도,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길지만도 않은 시간이다. 입대당시 거의 900일에 달하는 시간 동안 하려했던 것들(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거창한 것들도 있다)을 지금에 와서 뒤늦게 다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하나 둘씩 이루어 나가야겠다.

Bring It On!!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역준비라고 생각한다. 군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마무리란 뭘까? 전역하는 그날, 가슴을 활짝 펴고 밝게 웃으면서 긴 군 생활이었지만 나름의 성취감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가슴속에 간직할 그 뿌듯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전역선물이 될 것이다.

자,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가?
그렇다면 외쳐라, 스스로를 향해!
『Bring It On!!』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첫 비행, 첫 경험...

나는 영원한 공군!



항공사진정보대대장 중령 **황지홍**

『내가 다시 땅을 무사히 밟을 수 있을까?』 하는 허무한 생각이 교차하던 어젯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다. 날씨가 아주 좋다.

Take Off!!

나를 태운 F-5는 활주로를 가볍게 차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이 나를 반기는지 기상은 아주 좋았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 뒤로 다른 한 대의 F-5가 우측 하방에 바짝 붙어서 나란히 비행하고 있다.

아침에 임무브리핑을 주도하고 나에게 이것저것 안전사항을 설명해 준 후배 권 대위가 내 앞에 앉아 있다.

“중얼중얼 ...LEFT 엔진 ...OK, RIGHT 엔진 ...OK... 중얼중얼” 설새 없이 떠들고 있다(내가 못 알아들으니, 일부러 영어로 말하는구나... 에휴~!, 나도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바쁜 와중에도 나한테 말을 건다. “대대장님 10시 방향이 원주입니다.^^”

숨막히는(?) 임무기동

우리가 임무를 할 6공역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설레인다. 그런데 임무공역엔 먼저 온 다른 항공기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전방석에 있는 권 대위가 5공역에서 잠시 대기하겠다는 말이 헬멧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물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냥 대기하면서 기름을 소모할 리가 없다. “대대장님 지금부터 전술기동 하겠습니다.” 으음... 흠! 저고도이므로 산꼭대기가 불쑥 불쑥 올라온다. 무섭다. “우리애들 아직 어려... _-;”

6공역에서 임무하던 항공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이탈하고 있다. 관제사의 허락을 받고 이제 우리 편조가 공역에 진입하였다. “자 임무 진입합니다. #1 GO!” 읊!!!!흠!!!!... 5공역에서 한 전술기동은 장난이다. 이제 산꼭대기가 옆으로 보인다. 진짜 무섭다.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를 주체하려고 헤드레스트 쪽으로 억지로 당긴다. 이때 새삼 내 머리가 크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우울해 진다. 앞에



선 권 대위가 계속해서 떠돌고 있다. “음 좋아 LEVEL OFF 하고… 약간 좌비된 것 같은데… 재진입할까요?(#2) 아냐 프레임 안에 들어왔어……” 아니 언제 조종하고, 언제 #2 자세보고, 언제 임무각도까지 보는 거야? 나는 내 머리하나 가누기도 힘드는데…

Landing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다. “대대장님 이제 가시죠!” 다행이다! 간단다.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다. 다시금 내 크고 무거운 머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헬멧 내부를 내 머리에 맞추는 몰딩작업을 하라는 조언을 듣지 않고 후배 조종사 걸 착용했더니… 편두통이 우측 머리를 사정없이 찌르고 있다. 헬멧을 약간씩 옆으로 앞으로 돌려본다. 그나마 내 머리에 맞는 헬멧이 있는 것이 행운이다(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대두(大頭)거든).

구름을 뚫고 내려오니 정겨운 모기지 활주로가 보인다. 비행 10년차 권 대위는 비행 경로를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미끄러지듯 활주로에 접지하면서 계속해서 관제사와 교신을 한다. “음 약간 낮군!… Power 조금 더 넣고 유지! 됐다… 계속 들고, 들고… D-CHUTE…” 입아프겠다… 그래도 아주 잘하는

군. 그래, 고맙다. 짜식!!

활주로를 드디어 항공기 이글루에 진입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 환영도 아닌데, 내가 속한 대대원들이 꽃다발 들고 환영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나는 고작 후방석에 타고, 아니 실려 다닌 것밖에 없는데. 무지하게 쑥스럽구만… 주기장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으니 진짜 폼 난다.

품을 잡으면서 사진 찍는 짧은 순간,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하면서부터 얼마 전 조종사가 아닌 내가 비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항공적성훈련까지의 고된 시간들이 16mm 영사기에 걸려 나오는 영화처럼 지나갔다.

내가 속한 비행전대 창설 이후 조종사가 아닌 항공사진 관독관이 항공기를 탑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대대 관독관들은 20년 이상 또는 20년 가까이 필름을 들여다보느라 눈들이 조금씩 튀어나와 있다. 물론 핏발도 서 있다. 또, 30년 가까이 유독 화학물질인 사진 현상 인화약품과 씨름해온 탓에, 관독관들은 대대주변에 널려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과실의 그 향긋한(?) 냄새도 맡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대표하여 체험비행의 영광을 맛 볼 수 있었다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

아침형 인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명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조기 기상은 그 장점이 널리 알려진 생활패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교활동이라고 해도 저녁에 하는 사교

활동은 회식과 같은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사교활동이 많은 반면 아침에 하는 사교활동은 조기축구회 등의 주로 육체적,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뻘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왜 이렇듯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책이 아침형 인간의 장점을 단 순 나열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실용도서』이기 때문이다. 100 일이라는 기간까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일본어 『100일 완성』만큼이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매일 저녁마다 『내일은 일찍!』 다짐을 하고도 드라마 몇 편 보고 리모컨을 굴리다 설레벌레 새벽 즈음에야 잠이 드는 사람은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만큼이나 널려있다. 금연이야 금연초다 침이다 많이 나와 있

어 그나마 괜찮지만 이 의지박약의 올빼미족들에게 무슨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가?

한가지, 아침형 인간은 어디까지나 대자연의 섭리—새벽녘에 깬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서울과 동경의 시각은 동경표준시로 동일하지만 실제 해 뜨는 시각은 약 45분의 차이가 난다. 즉, 이 책에 나온 대로 새벽 5시 이전에 기상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새벽 4시 이전에 기상하는 것과 같다. 생체시계적인 측면에서 이 같은 기상은 다소 무리한 요소가 있으므로 한국에선 5시 30분을 전후한 기상이 무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실린 『야행성 생활 청산하는 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

야행성 생활을 청산하는 법

- 첫째, 습관적인 야근과 상습적인 음주 등 비효율적인 저녁 활동을 청산해야 한다.
- 둘째, 야행성 생활이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점검하고 검진을 받아본다.
- 셋째, 잠을 무조건 줄이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을 정하고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 넷째, 스스로의 결심과 계획을 주변에 꾸준히 알리고 각인시킨다.
- 다섯째, 저녁운동도 좋다.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 저녁에는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꽃이 피는 아름다운 4 월 에...

제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4월은 봄의 기압배치를 보이면서 저기압이 빈번히 지나가므로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자주 바뀌는 번덕스런 날씨를 보인다. 기온은 7~18℃로 날이 갈수록 봄이 온 것을 느끼게 되고 강수량은 조금씩 늘어 월 평균 90mm 정도에 달하지만 긴 겨울 가뭄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기상이변

올해는 연초부터 『자연재해』라고 할만한 기상이변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1월 말 미국 동북부를 급습한 폭설과 폭풍은 47명을 숨지게 하고, 대규모 정전과 철도·항공기 등의 운항중단 사태를 불러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월에는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때아닌 봄이 성큼 오는가 했더니, 3월 4일엔 서울에 20cm의 눈이, 그리고 5일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59cm의 폭설이 내려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4월에도 기상이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대기가 건조한 시기, 산불조심!

4월은 대기가 건조한 시기이며 나무에는

아직 수액이 충분히 오르지 않아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달이다.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약 5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그 중 36퍼센트인 180여 건이 4월에 집중되어 하루평균 6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액은 연평균 870억인데 그 중 90%에 가까운 780억 정도가 4월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작전을 비롯한 각종 야외활동을 할 때,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기로는 황하의 물이 연중 가장 깨끗하다는 청명(淸明)이 4일이고 식목일이자 한식(寒食)이 5일이며, 촉촉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가 20일이다.

봄! 푸르게 하늘거리는 버드나무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봄바람에 나부끼는 여인네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계절이다.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 산불예방 등 주변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나간다면, 올 4월은 정말 아름다운 봄으로 다가올 것이다. Ⓣ



이번 호 『공군』에서는 『군 생활 추억, 사랑의 CD안에』라는 기사를 매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군대를 가는데 공군에서는 전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군 생활의 향수가 담겨있는 CD를 제작해 주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호에도 재미있는 공군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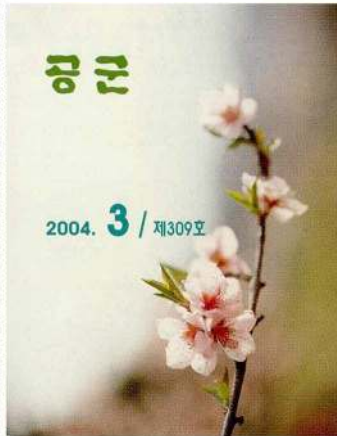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장동진

점점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읽을거리가 늘 기다리게 해줍니다. 정년으로 공군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흘렀군요. 같이 근무하던 전우들이 늘 그립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6동
성광현

법률상식 『TV속 정치문제, 알고보면 상식』이라는 기사를 가장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막연히 정치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없애준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최근의 정국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구요.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최애정



『KT-1 기본훈련기를 타다』라는 기사를 가장 흥미 있게 읽었는데요. 전투조종사의 훈련과정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정재훈

봄이 오는 길목에 받아 든 3월호. 언제쯤 도착하나 기다려지는 마음이 님을 기다리는 듯……^^ 고맙습니다!

경상남도 미산시 산호동
강화웅

월간 『공군』 매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이미 도씨 인터뷰 기사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공군엔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1동
김성환

친한 친구가 공군에 있어서, 학교 도서관에 올 때마다 월간 『공군』을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육군을 나왔습니다만… 항상 새롭고, 재밌게 지내는 공군. 참 부럽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동국대학
조헌태

테마가 있는 나들이 - 경주 편이 재미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명소로서가 아닌, 『화랑도의 도시』라는 접근이 참신했습니다. 군에서 내는 잡지에 잘 어울리는 기획이 돋보였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박진숙

형과 같이 공군에 입대해서 서로 다른 곳 다른 부대에 있지만 서로 공군지 보면서 공군에 입대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내용 많이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이상진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59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59쪽에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공군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임관식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박진숙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최윤창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정정숙
- 경상북도 경주시 동국대학 조헌태
- 경북 문경시 호계면 오희순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곽희영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민경국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장동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이석준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정재훈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4월 20일까지

반미감정, 폭풍은 지나갔지만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안 정 훈

지난 1월초에 『리서치&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가』란 질문에 미국이란 응답이 북한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 2월 말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의 결과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주한미군에 대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34.3%)』와 『상당기간 주둔해야 한다(27.1%)』는 입장이 『단계적 철수(33.1%)』와 『즉각 철수(3.8%)』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안보의식이 변화하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2002년 12월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증폭되었던 반미감정이 악화되고 한미동맹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반미감정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동맹의 반대는 고립이고 자주의 반대는 예측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마치 반대의 개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 세계적 추세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환상도 여전하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퍼레이드>는 2월 22일자 커버



스토리에서 『프리덤 하우스』, 『국제엠네스티』, 『국경 없는 기자단』과 같은 국제 인권 NGO들의 자문을 얻어 북한의 김정일을 『2004년 최악의 독재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실상은 도외시 한 채 민족공조를 외치면서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감상적인 목소리는 별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식 혼란의 귀결은 안보불감증으로 나타난다. 안보불감증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안보의 기본원칙마저 위협하고 있다.

서양 속담에 『폭풍 뒤에 고요가 온다 (After a storm comes a calm)』라는 말이 있지만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폭풍 복구 작업』이라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와 동맹에 대한 오해, 북한에 대한 환상, 안보불감증이라는 폭풍의 잔해들을 수습하고 국민의 안보의지를 어느 때보다 굳게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다.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 원고 : 이달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우리 동아리 최고,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go.kr, (인트라넷) ksh0450@af.mil

문의

02)506-6233, 호)6233



공군 예비역 장교 진급 선발 안내

공군은 예비역 장교들의 사기증진 및 애군심 고취를 목적으로 『04년 공군 예비역 장교 진급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진급대상** : 중위→대위, 대위→소령

◆ **지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04. 3. 15. ~ 5. 10.

○ 교부/접수 : 공군 홈페이지에서 접수(공군모집→예비역 진급 선발→지원서 작성)
우편접수(등기속달) : 우320-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05호
각 지역 공군부대 민원실

◆ **진급자에게는** ▲ 진급 선발 당해연도 동원훈련 면제(기훈련 수료자는 익년도 훈련면제)

▲ 현역시 동일한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교와 동등한 대우

▲ 국방부장관 임명장, 계급장 및 기념품 수여 등의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02-506-3081~5) 및 각 지역 공군부대 인사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제26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 본선대회

- 일 자 : 2004년 5월 16일(일)
* 우천시 : 5월 23일(일)
- 장 소 : 공군사관학교
- 주 최 : 공군본부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항공회, 한국과학문화재단

